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이 진행되고 있다.

무슬림 위한 30일 기도

6월 6일에 시작된 무슬림의 라마단 기간 기도는 오는 7월 5일 까지 계속된다.

라마단 월은 이슬람력에 따라 정해진다.

양력으로는 매년 약 11일씩 차이가 나며 달의 출현여부에 따라 나라별로 다를 수 있다.

독실한 무슬림들은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하여 그날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한다.

라마단 기간에 맞춰 그리스도인에게도 무슬림을 향한 특별 기도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전 세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교단과 언어, 문화를 초월하여 무슬림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눈물로 기도하며...복음통일 앞당기자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기념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 개최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대표회장 김삼환 목사)가 20일 서울 명성교회에서 민·군 연합 6.25 제 66주년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

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 기도회는 올해 제66주년을 맞는 6.25 한국전쟁을 기념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1부 입례와 2부 기도회, 3부 위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특히 기도회는 이정익 목사(대

한성서교회 이사장)의 설교와 공정식 전 해병대 사령관의 6.25 증언, 통일을 위한 기도, 김삼환 목사의 인사말, 6.25평화통일선언문 낭독, 만세삼창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우리 민족의 남은 숙제'(신 32:7)를 제목으로 설교한 이정익 목사는 "우리 민족에게 한 가지

남은 숙제가 있다. 바로 평화통일을 이루는 것"이라며 "이것은 지난 8.15 해방처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힘써야 할 일이다. 이 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8면에 계속]



요한선교단 제59차 친구약 통독집회가 헐리웃호순장로교회에서 열렸다.

"술에 중독돼 간질증세까지와 가족 모두 차라리 죽기를 바랄 정도로 폐인이었다. 예수 믿는 사람

"제2의 종교개혁도 성경으로" 제59차 요한선교단 친구약 통독집회 열려

하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셨다."故 박종면 목사의 이야기이다. 주님은 알코올 중독으로 망가진 박종면 목사의 뇌를 소생시키셔서 성경 말씀 4,000절을 암송케 하시는 기적을 보이셨다.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성경 전체를 통독하고 암송하는 요한선교단을 1990년 7월 10일에 창립하게 하셨다. 그간 집회 도중에 수없이 많은 병 고침의 기적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 요한선교단은 지난 20여 년간 10만 명이 넘는 수료자를 배출하고 성경 통독과 암송, 묵상을 통

해 바른 구원의 확신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훈련을 계속하고 있다. 한국을 넘어 아시아와 미국 유럽까지 요한선교단의 사역이 확장되고 있고,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을 통독하고 암송하는 일을 통해서 제2의 종교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3일~16일까지 헐리웃호순장로교회(담임 김동원 목사)에서 미주요한선교단(대표 안성기 목사)이 주최하는 제59차 친구약 통독 집회가 열렸다. [관련기사 2면에 계속]

전 세계 난민 6천 5백만 명 英·佛 인구보다 많아

전쟁과 박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고향을 떠나 난민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사상 처음 6천만 명을 넘어섰다. 유엔난민기구(UNHCR)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연례 동향 보고서에서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외 강제 이주를 당했거나 난민으로 지내는 이들의 수가 6,530만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5,950만 명 정도였던 1년 전과 비교해 거의 600만 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관련기사 10면에 계속]

"예수영생을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관상기도회(금) 오후 8: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아이비 유학 Shelby Kwon Director

적성검사를 통한 진로 선택의 지름길
 재능 개발: 토렌스, 엘바인 Class
 (Verbal, Visual, Logical, Creative, Physical, Emotional)

3-7-21 재능캠프

USA Tel: (951) 383-5583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ivdream.com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2016 청소년 연합 수련회

강사 | 새라 김 사모 (TVNEXT 대표) | 노형건 선교사 (미주복음방송) | 용기장이 선교단

김춘근 장로 (JAMA 설립자, GLDI대표)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 20일(수)
 장소 : 나성순복음 국제금식 기도원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주관 : 나성순복음 국제 금식 기도원
 문의 : 기도원 (951-928-4415, 213-369-0396)

등록인원 : 선착순 150명
 대상 : 남가주 지역 작은교회 청소년 (6 - 12 학년)
 ※한교회에서 15명까지만 등록을 받습니다.
 등록기간 : 2016년 6월 20일(월) - 7월 11일(월)
 등록비 : 무료 (Free)
 등록방법 : www.lafg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하신 후 이메일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등록이 완료 됩니다.
 Email : fgpmmyouth@gmail.com
 Fax : 951-928-4017



제1회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문교회가 제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예배를 드렸다.

“남가주한인목사회장배 친선 탁구대회 열려”

교파와 교단을 초월한 목회자들의 친교와 연합의 장 대

남가주한인목사회 주최로 제1회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총신대남가주총동문회, 장신동문회, 연목회, 서울기독교대동문회 등이 공동주관하면서 교단과 교파가 다른 목회자들의 친교와 연합의 장이 됐다.

20일 오전 LA한인타운 내 한 탁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에는 목회자와 전도사 부부 76명이 참석해 나이별로 단식 경기, 제비뽑기로 복

식 경기를 즐겼다. 단식 경기의 대상은 임요한 목사(제자교회)가 차지해 트로피와 함께 한국 왕복항공권을 받았고 최우수상은 전상천 목사(내일을드리는교회)가 차지해 3박4일 국내여행권을 받았다. 우수상은 김용 목사(은회)가 차지해 2박3일 국내여행권을 받았다.

이어진 복식 경기에서 1등은 양경선-임요한 목사 팀, 2등은 안시영-이희철 목사 팀이 차지했다.

이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출전자 접수해, 9시 30분 안기정 목사의 사회로 시작했다. 남가주한인목사회 수석부회장 김종용 목사가 기도하고 회장 엄규서 목사가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용 목사가 경기 진행 방식을 소개한 후 곧바로 경기가 시작했다. 경기를 마친 후에는 윤성원 목사가 축복기도 했다.

김준형 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동문교회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예배 드려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는 동문교회(East Gate Korean Presbyterian Church)가 18일 오전 11시에 제 6대 담임 김광삼 목사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관계자와 동문교회 성도를 비롯, 외부 축하인사들이 참석해 본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김성일 목사(임시당회장)가 예배를 인도했다.

박영수 장로가 대표기도하고 김성일 목사가 설교했으며 김광삼 목사에게 취임패가 전달됐다.

조명철 목사(전임 수습위원장), 백창호 목사(오렌지힐교회)가 권면하고 명종남 목사(한길교회)가 축사, 김광삼 목사가 취임사를 했다. 민병창 장로가 인사 및 광고, 박대원 목사(은혜로운교회)가 축도했다.



김광삼 목사 동문교회 6대 담임

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전했다.

조명철 목사는 새로 취임하는 김광삼 목사에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목회자가 되라”고 권면했다. 축사를 전한 명종남 목사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로 새롭게 출발하는 동문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전한 김광삼 목사는 “이 자리에 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다. 아무 것도 자랑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강권적인 역사하심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고백한다”면서 “이곳이 마지막 목회지라 생각하고 그 동안 목자를 찾아 기도하며 울부짖은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 교회를 지켜준 성도들을 전심을 다해서 섬기겠다”는 겸손의 말을 전했다.

이인규 기자

“제59차 요한선교단 신구약 통독집회 열려”

[1면으로부터 계속] 식사도 하루에 2끼밖에 제공되지 않는다. 잠도 3일 내내 통독하다 의자에서 쪽잠을 자야 한다. 성경의 신구약 말씀을 완독하고, 2016년의 하반기를 새롭게 출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남가주를 넘어 멀리 한국, 유럽에서도 모였다. 벌써 두 번째 통독 집회에 참석한다는 한 성도는 “두 번의 통독 집회를 통해서 너무 먼 거리도 아닌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치 헬리콥터를 타고 성경 전체를 보는 듯했다”면서 “앞으로도 통독 집회에 계속해서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요한선교단 대표인 김동진 목사는 통독과 암송의 중요성을 힘주어 강조했다.

김 목사는 “통독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사람

으로 다시 태어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올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며, 교회에서 자신의 위치와 할 일을 깨달아 성경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가지게 된다”고 말했다.

유럽 요한선교단 대표인 임현영 선교사는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당이 술집과 이슬람의 모스크로 팔리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 통독 훈련을 통해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기적을 보게 된다.

특히 각 나라의 언어로 통독과 암송하는 훈련을 통해서 현지교회가 서게 됨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미주 요한선교단 대표인 안성기 목사는 “성경 통독과 암송 훈련을 통한 말씀의 체질화만이 세속화 돼 가는 교회의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

했다. 그는 또 “생각이 행동을 움직이듯 이 말씀이 곧 가치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변한다”고 말했다.

성경을 재미있고 은혜롭게 읽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한 안성기 목사는 “많은 성도가 성경 통독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래 들려주신 말씀 그대로 소리를 내어 입을 때 더욱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게 되고 그 뜻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읽으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체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노동절 연휴인 9월 5일 온타리오에 있는 가스원연합교회(담임 이희철 목사)에서 신약 일일 통독 집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인규 기자

베데스다대 학위수여식 41명 졸업 절반이 타인종

베데스다대학교 제39회 학위수여식에서 41명이 학위를 받았다. 1976년 순복음중앙성경대학이란 이름으로 설립된 이래 현재까지 1,392명의 동문을 배출한 베데스다는 2000년대 초에 이미 ABHE와 TRACS로부터 인가를 받았다. 그리고 미주 한인 대학 가운데 상당히 일찍부터 정식 학위를

수여해 온 대학 중 하나이다. 현재는 목회학과 신학 외에도 음악, 디자인, IT, 유아교육학, 경영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베데스다대학은 이번에 학위를 받은 41명 가운데 한인은 2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타인종일 정도로 국제화됐다.

나성순복음교회에서 18일 진행된 학위수여식 및 졸업예배에서는 전 총장인 진유철 목사(나성순복음교회 담임)가 설교했고 조에스터 부총장이 학위 및 상장을 수여했다. 한국에서부터 김성혜 이사장이 직접 방문해 졸업생들을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김준형 기자



2016년 베데스다대학교 학위수여식이 18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열렸다.

SAS 인가컨설팅 I-20신청, 선교회, 연구소, 직업학교, 종교특례대학, 일반대학 설립/인가

대표 Paul Kim, Ph. D summitus37@gmail.com

Tel : (213)531-7215, (909)993-3028

2975 Wilshire Blvd, Suite B01, Los Angeles, CA 90010

제27회 여름 산상대부흥성회

세계 장애인과 함께

With the physically challenged of the world 일어나서 함께 가자(야2:13)

단기선교를 그리는 온 세계 한국에서 장애인과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고문	고문	증경이사장	증경이사장	직전이사장	직전회장	상임회장	증경회장	증경회장	실무위원장	운영위원장	
배동훈 목사 청담리교회	추연승 목사 온화교회	김태식 목사 삼양중앙교회	구자경 목사 창천교회	임순자 목사 연아비전교회	김천기 목사 한동교회	고은기 목사 새영교회	김영덕 목사 삼이교회	최동출 목사 새영교회	김평석 목사 은혜중앙교회	박복영 목사 공주회교회	
행정위원장	21C 위원장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강사	
손요한 목사 예스교회	이현승 목사 넘치는교회	김성희 목사 하와이교회	김경식 목사 임마누엘교회	김의택 목사 익산성교회	손문수 목사 동탄순복음교회	이금자 목사 소망교회	고권능 목사 세계교회	차창규 목사 삼양교회	임태운 목사 석남중앙교회	우중희 목사 만석교회	
미주자문위원	시카고지부장	미주지부장	뉴욕지부장	하와이지부장	강동지부장	홍천지부장	시흥지부장	부평지부장	부산지부장	독산지부장	찬양강사
김순철 목사 시카고	안성기 목사 남서교회	이웅 목사 순천교회	차철희 목사 뉴욕교회	백애현 총무 하와이교회	김은혜 목사 수정교회	이상옥 목사 콜벤동산교회	조정애 목사 한국교회	조정숙 목사 제일중앙교회	김명애 목사 부산지부장	홍사선 목사 독산지부장	고해옥 사모

로스앤젤레스 한국

지부장 김천한 선교사 213-736-6625(사랑의 띠 선교회)	고창수 목사 010-8870-5742, 02-2632-4806
--	---------------------------------------

하와이 지부: 백애현 총무 808-383-6962

- 우리는: 173-245274-13-002
- Email: ellim54@hanmail.net
- 후원: 극동방송, 미주복음방송, 미주기독교방송, 기독교일보, 시카고기독교방송, 한장선, 서울운전기사 선교연합회
- 담당출발검정: 영등포구청 지하철역 옆 (오전 10시) (5호선, 2호선하차 영등포구청 옆)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22일(금)까지
집회 : 새벽 6시, 낮 11시, 저녁 7시 30분

주최: **엘림장애인선교회**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2기 30-2 유통상가 412-1
www.ellim1004.com / Tel / (02)2632-4806 2634-6557

장소: **포천, 한국중앙기도원**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 성동4리 산 60-1번지(피주굴)
Tel. (031) 531- 1151~2, 533-0602



효사랑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 시니어 대학이 14일 봄학기 종강예배를 가졌다.

“삶에 대한 사명감 되찾아요”

효사랑 시니어 대학 봄학기 종강... 의미있는 삶의 회복 계기돼

효사랑 시니어 대학이 봄학기를 마쳤다. 지난 1월 19일에 개강하여 6월 14일까지 실력있는 8명의 강사와 많은 협력자들의 봉사와 수고에 힘입어 35명의 시니어들이 한 학기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무사히 마쳤다.

종강예배에서는 학장 남승우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효사랑선교회 이사장인 김영대 목사가 마태복음 5장 8절을 본문으로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교를 전했다. 임영호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효사랑선교회 대표 김영찬 목사가 감사 인사를 전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2015년 7월 9일에 시작돼 이번에 두 번째 종강을 맞이하며 주변 시니어들을

지난 1년 동안 변함없이 섬겨왔다. 이제 갓 시작한 시니어 대학이지만 성경 파노라마, 힐링체조와 건강강의, 난타교실, 대화교실, 찬양울동, 스마트폰, 음악교실, 시니어 생활 영어교실 등 유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 내용이 좋아 주변 시니어들에게 많은 기대를 심어주고 있다.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매주 화, 목요일 오전 9시~12시까지 진행하며 점심도 제공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 성경적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자는 목적으로 시작한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는 성숙한 시니어 의식을 모토로 삼고, 매일 수업 시작과 마치는

시간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는 구호를 합차게 외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동참하는 학생들은 시니어 대학을 통하여 영, 혼, 육의 건강과 삶이 회복되며, 남은 삶에 대한 사명감을 깨닫고 인생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기 시작했다.

또한 스태프진들의 헌신적인 수고와 노력으로 점점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효사랑 시니어 대학은 학장을 비롯하여 강사진까지 모두가 무료로 헌신하며 봉사와 섬김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고 있다.

*가을학기 개강: 7월 12일
*문의: 562-833-5520
*주소: 14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효사랑선교회 제공]



7월 18일~20일까지 청소년 수련회가 열릴 나성순복음국제제금식기도원.

“은혜받을 준비하세요”

나성순복음교회 후원... 작은 교회 위한 청소년 수련회

이번 여름, 작은 교회를 위한 초교과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Back to the Bible'이란 주제로 나성순복음국제제금식기도원(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에서 열린다. 7월 18일~20일까지 찬양과 말씀 집회, 레크리에이션, 야외 활동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데 참가비가 무료다.

이 행사는 수년 전부터 나성순복음교회와 나성순복음국제제금식기도원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들, 그 중에서도 인원수 혹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체 청소년 수련회나 여름성경학교를 열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섬기고자 고민한 끝에 기획했다.

따라서 이 행사에 참가하고자 하는 작은 교회나 청소년들은 단 한 가지, '은혜 받을 준비'만 해서 오면 된다.

강사는 청소년 사역에 특별한 은사를 가진 외부 강사들이 초청된다. 먼저 김준근 박사는 오랜 기간 JAMA 사역을 통해 한인 2세, 그 중에서도 청소년들을 미국의 주인이자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일을 해왔다. TVNEXT의 새라 김 사모는 미국의 기독교 가치관 회복 운동

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차세대 신앙 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인물이다. 둘 다 완벽한 이종언어 구사자이기 때문에 참가 청소년들의 언어에 맞추어 한영으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련회 기간에는 노형건 선교사의 찬양 간증 집회, 한국 옹기장이 선교단의 찬양 집회, 신나는 레크리에이션, 야외 활동도 준비돼 있어 청소년들이 영적 은혜와 함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도록 한다.

교회 단위로 참가할 수도 있고 청소년 개인이 참가할 수도 있지만 교회가 자체적으로 청소년 수련회를 하지 않는 교회와 청소년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6학년부터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대학생들은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기도원의 이태준 부원장은 "이 행사가 한인 청소년들이 미국과 세계의 미래를 짊어질 예수의 작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회)323-913-4499나 (기도원)951-928-4415로 하면 된다.

김준형 기자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 주최 장애인 가족 초청 아우회가 18일 개최됐다.

“살롬장애인선교회...장애인 가족 초청 아우회 개최”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제17회 장애인 가족 초청 아우회를 18일 위티어 내로우 공원에서 개최했다. 이 아우회에

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170명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살롬장애인선교회는 1999

년 6월 LA 코리아타운에 설립되어 지난 17년간 남가주는 물론 지구촌 장애인선교를 위해 헌신해 왔다. *문의: 323-731-7724

행복목회컨퍼런스

“당신의 교회는 행복합니까?”

교회는 행복을 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행복목회가 대안이다. 행복목회 컨퍼런스는 그 대안 모색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일시: 8월 15일(월)~16일(화)
-장소: 은혜한인교회

- 대상: 담임목사, 사모, 선교사, 부교역자
- 등록비: 1인 100불, 부부 150불 (교재 및 식사제공)
- 문의: 714-446-1000, 1004
- 웹사이트: www.gracemi.com
- 주최: 행복목회아카데미
- 주관: 은혜한인교회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엇일까? 자동차 구입할까? 리스 할까? 내가 용자가 될까? 안될까? 1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발에 달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현관까지 다 돌려보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 힐스 현대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213-389-8275
520 S. Virgil Ave., #305 Los Angeles, CA 90020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대)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5일 (예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서북미 목회자 성경연구원이 주최한 성경적 인지 치유 세미나가 열렸다.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서북미 목성연 치유 세미나 개최...올바른 평신도 리더십 육성에 도움돼

서북미 목회자 성경연구원(대표 이동기 목사)이 주최한 성경적 인지 치유 세미나가 13일~18일까지 타코마 샤론센터에서 열렸다.

성경적 인지 치유란 우리의 왜곡된 생각을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바른 생각으로 바꾸고 선입견이나 편견, 고정 관념의 틀을 허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고로 변화시키는 회복의 과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했던 목회자들은 “지금까지 성경 말씀에만 초점을 두고 성도들을 양육해 왔지만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잘 알

지 못했던 것 같다”며 “세미나를 통해 성도들의 변화와 성숙에 대한 목마름과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할 해답을 얻게 됐다”고 호평했다.

세미나는 기질과 양육패턴, 상황과 반응, 합리적 사고와 성경적 사고, 구속사 지향적 사고, 감사와 결단, 나의 인생 광야 5단계 극복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진행됐다.

세미나를 인도한 조석우 목사는 “인생의 변화와 회복은 먼저 나를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며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

관을 합리적인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꾸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라고 소개했다.

조 목사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느낌이 바뀌고, 느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성품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면 결국 인생이 바뀌게 된다”며 “지금까지 나를 형성했던 그릇된 가치관과 편견을 모두 내려 놓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바라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브라이언 기자



훈두라스 공립학교에 태권도 선교의 문이 열렸다.

훈두라스 공립학교 태권도 통한 선교의 문 열려

이 선교센터의 소유권은 학교에 있지만 사용권은 베다니교회와 권영갑 선교사에게 있으며 마음껏 태권도 선교를 할 수 있게 계약이 됐다. 건축비용은 베다니장로교회가 후원했다.

선교센터 한당식은 프로그레스시와 학교의 큰 잔치로 성대하게 거행됐다.

훈두라스 교육부장관, 시장, 대사관, 지역사령관이 참석해 축하했으며 지역 방송국과 신문사에서 집중 취재해서 방송 함으로 태권도를 통한 선교사역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됐다.

지난 3년간 권영갑 선교사가 가르친 태권도반 학생들은 전국 태권도 대회 우승을 휩쓸었다

권 선교사가 가르친 태권도반 학생들은 지난 2년 동안 종합 우승, 2등, 3등을 휩쓸며 훈두라스에 태권도 바람을 일으키며 태권도를 통한 선교의 문도 활짝 열여가고 있다.

앤더슨 김 기자

중남미 훈두라스 공립학교에 태권도를 통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렸다.

3년 전, 베다니장로교회(담임 최병호 목사)와 미국장로교 대서양 함미노회 선교사로 파송 받은 권영갑 선교사가 종교 등 공립학교에서 태권도와 말씀으로 기독교 젊은이를 길러낼 수 있게 된 것.

이에 대해 권 선교사는 “공립학교에 들어가 선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태권도를 통해 공립학교에 들어가 선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존의 교육선교는 학교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을 건축하고, 교사들을 채용하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교건물을 유지해야

하는 등 막대한 재정과 인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공립학교에 들어가서 선교할 수만 있다면 학교를 건축할 필요도 없고 교사와 학생들을 모집할 필요도 없으며 학교 운영비도 필요 없다. 학교 안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여 태권도로 정신을 개조하고 기독교 복음으로 거듭난 교회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태권도 사관학교와 같은 선교사역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선교가 가능했던 것은 베다니장로교회가 지난 8일 훈두라스 프로그레스시에 위치한 빼틀라 울루아 중학교(3500명)에 태권도 선교센터(체육관)를 완공하여 기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오네시모의 독백

김영언 저



21. 사랑받은 나사로 남매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 설명하면 어떻게 신이 동시에 인간일 수 있는지 그건 말도 안된다고 얘기한다. 충분히 이해한다. 사실 말이 안되니까. 예수의 주변에는 신을 자처하는 이가 어떻게 하나 보자 관찰하는 이들로 가득했는지 인

핀잔을 들어가며 예수의 곁을 지키면서 300 데나리온어치나 되는 비싼 향유를 예수의 발에 쏟아부었다. 예수와 그들은 정말로 서로 사랑하였다.

그 외중에 제자들의 반응에서는 질투심이 느껴진다. 예수가 나사로를 살리려 베다니로 가져오 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왜 또 거기에 가냐고 통명스럽게 답하였다. 가룟 유다는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나무라면서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게 낫다고 하지 않았던가. 예수가 제자들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마음을 준 것을 보면, 예수 역시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더 챙기는 인간의 자연스런 성정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이 든다.

나사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예수가 죽은지 나흘만에 무덤에서 살던 그 나사로 말이다. 평소 감정을 잘 보이지 않았던 예수가 나사로의 시체가 이미 썩어간다고 우는 마리아를 보고 눈물을 크게 흘렸다. 그리고 무덤에서 썩어가던 나사로를 불러냈다. 예수의 수많은 기적 중 가장 큰 것이었고, 바로 옆동네에서 벌어진 그 기적때문에 백성들이 크게 동요하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이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예수의 죽음 이후 나사로 남매의 행보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려진 게 없다. 예수와 함께 나사로도 제사장들이 죽이려 하였으니 어딘가 멀리 피해 있으라고 예수가 지시하지 않았을까도 싶다. 다만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초기 핍박을 피해 사방으로 퍼질 때, 제국의 북쪽 변방인 골지방(저지주 - 프랑스 남부)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변방에서도 교회가 커져가고 있다는 얘기가 여기까지 들린다. <계속>

심자가에 못박히기 직전 예수가 베다니에 마지막으로 왔을 때 음식을 준비한 이가 누이동생 마르다이고, 막내 마리아는 언니의

미주 목회자 위한 성경 세미나

“6월 30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저자 라흐체 목사 초청 미주 목회자 및 사역자를 위한 특별 성경 세미나가 열린다.

-일시: 6월 30일(목) 오전 10시~오후 3시
-장소: 한미장로교회
-주소: 929 S Westlake Ave, LA, CA 90006
-등록비: 무료

-점심식사 제공
-인원: 선착순 100명
-강사: 라흐체 목사
-주관: 솔로몬대학교 임마누엘선교교회
-문의: 백지영 목사 (323-708-9191)
-도서주문: 전화)917-588-2934 이메일)gpscenter2014@gmail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이원상, 박기호, 방지석,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지사망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렌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나눔장로교회 이전감사예배 & 선교사 파송예배

- **일시** : 주후 2016년 6월 26일(일) 오후 4시
- **장소** : S.B 나눔장로교회 (S. B GIVING CHURCH)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 **문의전화**: Tel(310)404-6219

교회안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계시는 우리민족을 위한 작은 통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 교회. 남과북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서로 나누는 교회. 교회의 청년들이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 가족들을 통하여 북한을 배우고 통일을 준비하는 예배공동체.

설교본문: 사도행전 27장 20-26 (여러날동안---걸리리라하더라)
설교제목: ‘하나님의선교역사’



이해룡 목사

미주총신대학원: MDV학위취득, Calvin Seminary: Th M 과정수료
Life University 신대원: Th D학위취득 Life University신학대학학장역임
남가주초대교회원로목사로추대, 가주교육국에서조직신학교수인허
Life University 외 2개신대원조직신학출강
LA사랑의교회협력목사로봉헌
저서: '구원의초대', '내세론재해석'



평신도선교사
Joseph 김
(UC SAN DIEGO 졸업)



담임목사
김영구
LIFE UNIVERSITY (THEOLOGY) BA 졸업 M.DIV 졸업
FULLER SEMINARY MA 과정수학중.
NKIA REFUGEE CENTER (NORTH KOREANS IN AMERICA)
-미국에살고있는북한명망자들의모임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미주중앙노회

성령께 사로 잡혀 쓰임받자

사무엘상 10:1~8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사무엘상 10:1~8

1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의 지도자를 삼지 아니하셨느냐 2 네가 오늘 나를 떠나 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엘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네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를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오 하더라 할 것이요 3 네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블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보려고 벨엘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지라 4 그들이 네게 문안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으로 받으리라 5 그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느니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6 네게는 여호와와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7 이 징조가 네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라 8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칠 일을 기다리라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께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를 마감하시며 왕정 정치(王政政治) 시대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기름부어 성령이 임하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고 영적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신 기록입니다.

1. 쓰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 섭리

사울은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 용모가 준수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어깨 위는 더 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아오라는 명령에 사환과 함께 찾다가 찾지 못하며 사환의 제안에 따라 숲 땅에 있는 사무엘에게 암나귀들을 찾을 방도를 물어 보자고 갔다가 사무엘을 통하여 암나귀들은 이미 찾았다는 전언과 함께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여호와께서 네게 기름을 부으사 그 기업(나할라드) 곧 하나님의 소유, 이스라엘의 지도자(王)를 삼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은 것은 사무엘이 행한 것이나, 여호와께서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은 사무엘이 성령에

사로잡혀 성령의 지시를 따라 행한 것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아 행한 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암나귀들을 찾느라 애쓰다가 영적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뜻밖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는 사울은 모든 것이 졸지에 되어진 일들로 믿어지기 어려울 정도로 어리둥절 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선임된 것이 사무엘의 개인적 의지나 방법으로 한 것이 아니라, 순전히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과 섭리로 되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본문 2~7절 사이의 그 날로 사울이 당하게 될 3가지 예언적 징조가 사울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더욱 심각하게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중히 받아들인 것입니다.

2.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먼저 성령으로 사로잡으십니다.

그 날 사울에게 3번 째 징조가 실현될 때 10~11절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하므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의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함을 보아 이미 사울에게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즈음 교계에서 성령받았다 또는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같은 말들의 어원(語源)적 의식(意識)은 자기를 주격(主格)으로 세우고 성령은 자기의 소유격(自己所有格)으로 만든 것 같은 어감(語感)이 있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는다 고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할 수 있을 것인데, 자기를 주격으로 의식하다 보니 사언행(思言行)이 자기 의지적 주장(自己意志의主張)대로 자행(自行)하다가 신앙과 사명(使命)을 그르치는 이들이 많이 있음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나라는 자기 존재(存在)부터 아들의 피 값으로 구속하신 하나님의 소유물(所有物)임을 명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한 성령님의 도구로 더욱 요긴하고 힘있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 온전히 사로잡히고 점령(占領) 당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찌 되든 간에 내게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고 성령께 사로 잡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를 절실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같은 신앙 생활이 곧 성령께 사로잡힌 성도들의 성공적인 삶이 되겠기 때문입니다.

3. 영적 지도자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할 때 승리와 성공이 보장됩니다.

사울이 성령께 사로잡힌 후 사무엘의 지시에 따라 순종했을 동안에는 영적 승리의 삶이 성공적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세워 이스라엘 왕 삼으심을 선포한 후 이제부터는 백성들이 요구한대로 신정 정치의 사사 시대는 끝났고 사울 왕을 통한 왕정 시대가 열린 것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왕의 만세를 외쳤습니다. 영적 지도자 사무엘의 하나님의 뜻에 의한 역할과 지시에 따라 사울은 공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이 후 사울 왕의 체제는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혀 온 주변 국가들 곧 모압, 암몬, 에돔과 소바 왕국들, 블레셋과 아말렉까지 쳐부수고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자의 손에서 건졌습니다(삼상 14:47~48).

이상과 같이 사울은 여호와의 사자요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의 인도와 지시에 순복할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 성대의 반석 위에 올려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성령께 사로잡히고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쓰임받는 것은, 첫째로 죄악에서 구속받은 증거이며,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보증이 되고, 셋째로 그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가실 터인즉 성도(聖徒)는 전적인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쓰임받는 기쁨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25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

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너희는 유희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오늘 우리가 고달픈 내 형편과 처지며 환경과 여건이 나의 욕구와 기대를 따라 좋게 바뀌어 지기를 기대하지 말고, 서둘러 나부터 회개하고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성령께 사로잡혀 이끌리며 쓰임받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길 진심으로 소원할 때 주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모든 가능성의 방법과 풍요하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아고보서 4장 13~17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利를) 보리라 하는 자들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허황된 계획으로 허탄한 실패자가 되지 않도록 성령께 사로잡히고 이끌리며 보다 더욱 힘있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뜻 이루어 드림을 소원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성공하시는 동역 목회자, 기도원장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V 한국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V 미국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사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310	LA 미주 복음방송 월요일 오후 5시 / 화요일 오전 5시 / 하이라이 현저시간 오후 5시
미국 신문 설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리인 칼럼 설교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미국독점 출시 기념 파격 세일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100% 천연성분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

40여 년간 당뇨 연구를 해온 대한민국 대표과학자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연방 정부 지원을 받아 당뇨 신약개발을 위해 FDA 2차 임상을 진행하는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전, UCLA 의과대학 연구교수, 미 제향군인병원 수석연구원 세계3대 인명사전 Marquis Who's Who 등재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6개월 이상 복용하시면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하는데 PRO-Z GOLD가 해결해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 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유지에 그쳤으나 PRO-Z GOLD는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며,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 내 몸에서 스스로 혈당을 조절하게 하는 당뇨의 근본 원인을 해결 하는 솔루션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억제와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입니다.



송해선행님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프로지골드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및 프로지셀러모집중

토브 성경 연구

Tov Bible Study



강신권 목사

- 히브리식 사고 : 3통 사고
- 히브리식 체현 : 5특체현으로 성경 원전 해석
- 현재 : 요한계시록 특강(매주 수요일 7:30pm)
- 강사 : 강신권 목사
- 장소 : WBPC 세계성경장로교회

Tel(562)761-5242
Tel(213)739-0403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세금무료상담

확실히
줄여드립니다!!

이정운 CPA

- 개인 및 사업체에 맞는 절세
-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서비스 및 고객 데이터베이스 구축
- IRS, FTB, SBOE, EDD 세금문제해결
- 저소득층 세금환불(ETC)
- ITIN(개인납세자번호)신청 및 공증
- FAFSA, 소설연금, 해외자산신고 상담
- 정확한 서비스와 저렴한 수수료

Tel (213)387-2004

www.cyleecpa.com

3130 Wilshire Blvd. Ste 405, Los Angeles, CA 90010

Tax season 연장근무!!
(평일 9 am - 8 pm, 토요일 10 am - 5 pm)
(무료주차!! Free Parkin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픽업가능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Players Tour
12~14살, 18홀, 1~2명 모집
-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D.D.)
현 '제일좋은 예닮교회' 담임목사

• 교육칼럼(6)

청소년의 다섯가지 사랑의 언어(1)

청소년은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마음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많은 혼란을 겪는다. 이런 청소년 자녀를 어떻게 잘 사랑하고 키울 수 있을까?

개리 챔펀 박사는 청소년에게는 사랑을 표현하는 다섯가지의 언어가 있다고 한다.

그것은: words of affirmation(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 physical touch(신체적 접촉), quality time(양질의 시간), acts of service(희생하는 행동 및 모습), 그리고 gifts(선물)이다.

오늘은 words of affirmation, 칭찬 및 긍정적인 인정의 표현에 대해 나눠보자.

언어는 가장 기본적인 소통의 도구이자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동시에 말, 언어, 혀는 대인관계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에 야고보서는 혀를 잘 관리 하라라고 가르친다.

특히 부모와 십대자녀 사이에서는 대화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아주 많은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십대는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싶어한다. 즉 독립적이지, 부모와 동일한 인격으로 취급받고 싶어한다.

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미성숙한 것을 인식하고 있기에 어린이같이 취급하고 일방적으로 다룬다.

이것이 갈등의 원인이다(영어로 "growing pain"이라 불리기도 한다).



제이슨 송 교장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이러한 부모의 반응과 행동, 언어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어렸을 때 사용했던 애칭이나 별명을 부른다(예: 우리 강아지, 내 새끼, my baby 등).

둘째, 부모가 I love you(사랑한다)란 표현을 자주, 별 의미없이 사용한다. 즉 전혀 진심(sincerity)이 담기지 않은, 마치 주문처럼 표현하는 것은 청소년 자녀에겐 별 큰 의미가 없다.

셋째, 부모가 무조건 시키는대로 하라고 자녀에게 요구한다. 즉 자녀의 의견이나 생각을 무시하거나 묵살한다.

넷째, 자녀의 단점을 너무 자주 지적한다: 반대로 장점은 칭찬하지 않는다. 특히 친지나 남 앞에서 자녀를 흠잡는다.

다섯째, 칭찬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았어도 칭찬한다. 즉 부모가 "오바(over)"하는데, 청소년 자녀는 쉽게 꺾어져 본다.

여섯째, 친구나 동급생 앞에서 애정을 표현하며 어린이 취급을 한다.

이것은 아이로 하여금 수모를 느끼게 한다.

일곱째, 반항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무조건 노여움과 벌칙으로 자녀를 훈계하기에, 결국 자주 언성을 높여 다투거나 대화의 창구가 닫히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 특히 사랑의 표현과 긍정적인 언어를 자신의 사랑의 언어로 여기는 청소년은 부모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따뜻한 표현을 제공하지 않을 때 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 여긴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부모가 십대 자녀를 잘 파악해야 하고, 부모가 먼저 영육간의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다.

즉 부모가 지쳐있고, 부부간의 불화나 재정문제, 그리고 자녀양육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 특히 부모가 말과 협박으로 자녀를 복종시키는 가정안에서는 청소년인 자녀가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낀다. 말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가정엔 부모의 탓도 있지만, 청소년인 자녀의 문제도 무시해선 안된다. 성숙하지 않으면서 성숙한 사람같이 취급해 달라는 요구는... 물론 말이 안되는 요구 같지만, 이것이 바로 청소년이 미성숙한 것임을 잘 나타내준다. 그러니 좀 더 성숙한 부모가 미성숙한 자녀를 풀어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청소년에게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적절히 표현하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세상에서 '힘 파이프'가 되세요

아무리 많은 옷을 만들어도 유통이 안되면 소용없다. 아무리 많은 채소가 있어도 유통이 안되면 그 채소는 썩고 만다.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통하는 삶이다. 받은 은혜, 재능, 은사 등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이것이 건강한 인생을 사는 비결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생각해 도 그것이 유통되지 않으면 죽은 생각이 된다. 유통이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것이다.

행복 파이프, 복음 파이프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의 중요성을 알아도 몸으로 실천하지 못하면 죽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고 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는 기도하고 살아야지 하고 마음으로 결심한다.

그러나 주차장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어느새 그런 마음은 사라져 버린다. 자동차 안에서 휴대폰이 울리는 전화 소리와 함께 동시에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나 하고 새까맣게 잊어버린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누가 내 마음을 빼앗아 가는 걸까? 한 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는가?

이웃을 도와야지 하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실천에 옮기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기도의 중요성, 전도의 중요성, 사랑의 중요성, 칭찬의 중요성..

이미 지금까지 들은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을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해답을 찾을 수 있

도도록 힘을 주신다. 마음 먹은 것을 그래서 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힘이 우리에게 와야 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시18:1)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느8:10)

우리가 어떻게 이민사회와 미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평양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의 죄악을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자신이 변화되고 교회가 능력 있게 부흥 될 수 있을까?

그 답은 하나님이 하셔야 가능하다는 데 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신다.

하나님의 힘이 내게로 왔다는 것을 우리는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 은혜 받으면 할 수 있다.

은혜 받으면 예배에 목숨을 건다. 은혜 받으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다.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여! 저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 가정과 사업장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여! 교회와 이 땅과 조국과 미국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수 있는 힘(은혜)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자. 먼저 그분께 사정없이 매달리자.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자.

그러면 우리의 가문은 부흥 될 것이다. 열방이 깜짝 놀라는 큰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렘 33:3).

70억 이상이 힘보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의 힘을 전심으로 믿고 공급받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파이프 역할을 다 하자.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길 바라자.



정우성 목사
남가주광명교회

을까? 그 해답은 바로 사랑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전도 할 힘이 없는 것이다. 말씀을 듣고 실천할 힘이 내게는 없다는 것이다.

몸이 정말 아프면 전화 받을 힘도 없고 말할 힘도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능력이 없으면 힘이 없다. 힘이 없으면 손과 발을 움직이지도 못한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죽으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이다.

어린이에게 큰 짐을 가지고 오라고 말한다. 어린이는 그 짐을 옮기려고 하는데 짐은 꾀꾀도 안한다. 슬픈 현상이다.

왜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일까? 여기에 인생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나도 못하고 그들도 못하고 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오시면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 새벽마다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할 수 있다.

내 안에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힘이 내 안에 오면 할 수 있다. 70억 이상의 인구를 합친 힘보다 크신 성령님이 터치하면 할 수 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마음을 장악한다. 예수님이 할 수



우리 모두가 즐기는 **공원**

지금은 우리가 공원을 도울 차례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전역의 공원을 우리 가족과 커뮤니티가 매일 이용하고 있습니다. LA의 높은 인구밀도와 도심의 팽창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공원은 아름다움과 휴식 및 여가활동을 제공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그네타기, 농구공 놀이나 수영도 배우고 처음으로 자전거 타기도 배우는 공간이 바로 공원입니다. 또한 공원에서 친구도 만나고 운동도 하며, 특별한 휴가도 즐기고, 영감과 위안을 받습니다.

지금 공원은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1992년, 유권자들은 주민발의안A를 통과시켰습니다. 공원을 위해 공공기금을 확보하는 유형의 최초 발의안은 1996년 유권자들이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 공공기금이 바닥나고, 공원의 화장실, 식수대, 놀이터, 레크리에이션 시설물 등의 보수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민들이 공원의 보호, 관리 및 개선 가능한 방안을 찾기를 원한다고 조사됐습니다. 우리의 공원을 안전하고 깨끗하며 개방된 공간으로 만들고 싶다면 웹사이트 www.WeAllNeedParks.org를 방문바랍니다.



www.WeAllNeedParks.org





행사를 마치고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는 한장총 총대 회원들.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리부터 변화되자”

한장총 임시총회 통해 정관 개정...제8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 겸해 열려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 회장 백남선 목사, 이하 한장총)가 21일 오전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제 33-차 임시총회를 개최한 가운데, 대대적인 정관개정이 이뤄졌다. 골자는 운영위원회 폐지로, 그동안 운영위에서 다루었던 모든 일들이 임원회와 총회로 분산됐다.

더불어 한장총은 정관개정을 통해 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한국 장로교역사박물관추진위원회' '한교단다체제추진위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복지위원회' '비전 70위원회' 등이 바로 그것이다. 본래 이들 특별위는 상임위원회 아래

있었지만, 이번에 독립되어 자치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나왔다.

또 운영세칙 개정을 통해 교회 수 200개 이하 회원교단의 총대수를 2명에서 3명으로 늘렸고, 선관위 규정 개정을 통해 대표회장 선거 등이 모두 정기총회에서 시행되도록 했다.

투표도 1차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해 최다득표자가 선출되는 방식으로 했다.

한편 임시총회에서는 정관개정 외에도 대표이사에 백남선 목사(예정합동)를, 신임이사에 채영남

목사(예정통합)를 선임했다. 이후에는 제8회 장로교의 날 발대식이 진행됐다.

제8회 장로교의 날은 오는 7월 10일 오후 4시 15분부터 5시 50분까지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에서 약 4,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을 예정이다. "한국교회 연합하여 국민출애굽, 복음통일 이루자"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박무용 목사(예정합동 총회장)가 설교하고, 채영남 목사(준비위원장)가 성찬예식을 진행하고 폐회선언을 한다.

김규진 기자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교회가 토마스 선교사의 신앙 변증해야”

순교자기념사업회...토마스 선교사 순교 150주년 기려

한국교회순교자기념사업회(이사장 임석순 목사)가 21일 오전 서울 한국중앙교회(담임 임석순 목사)에서 2016년 제1차 한국교회순교자 추모예배를 드렸다. 이날 예배는 특별히 우리나라에 들어온 최초의 선교사인 故 토마스 목사의 순교 150주년을 기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임석순 목사가 인도한 예배는 이승구 장로(순교자 이태석 목사 유족)의 기도, 김명혁 목사(기념사업회 상임고문, 한복협 회장)의 설교, 박명수 교수(기념사업회 전문위원, 서울신대)의 발제, 임석순 목사의 감사와 인사의 말씀, 김명혁 목사의 축도로 드렸다.

'순교신앙을 가리며'(마 16:24, 계 2:10)를 제목으로 설교한 김명혁 목사는 "기독교에서 십자가 신앙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창한 설교도 심오한 신학 강의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하신 것"이라며 "그 십자가 신앙을 품고 순교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바로 故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한 故 주기철·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이들"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김 목사는 "교회는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진다. 그 희생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른다"며 "순교신앙은 매일 순교적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 우리가 그 신앙을 품어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을 닮아가자"고 전했다.

이어 故 토마스 선교사를 재조명한 박명수 교수는 "교회 안에서야 토마스 선교사를 그야말로 순교자이자 복음을 위한 선교사로 이해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를 소위 '제국주의자'로 보는 시각도 있다"며 "사실 역사적 자료의 부족으로 그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매우 어렵지만, 한국교회가 그에 대한 보다 깊은 연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토마스 선교사를 제국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 그는 한국과 프랑스 사이의 여러 국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입국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엇보다 그의 가장 중요한 입국 목적은 복음의 전파였을 것이다. 이제 교회는 이런 그의 신앙을 이 세상에서 증거하고 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수민 기자

“민·군 연합 6.25 제66주년 기도회 및 전국 지역 기도회 위촉식 개최”



김삼환 대표회장(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만세삼창하고 있다.

[관련기사 1면으로부터 계속] 김삼환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기도회와 위촉식에 오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참석해 주신 모든 교회의 지도자분들과 순서를 맡아 주신 분들, 그리고 평화통일을 간절히 염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바라는 메시지'를 전한 황성준 목사(한국군종목사단장) "1년 365일 중 단 하루라도 중요하지 않은 날이 없다. 오늘 우리가 편안한 것은 지금도 나라를

지키는 이들 덕분"이라며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기도다. 한국교회가 교단과 지역을 초월해 평화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6.25평화통일선언문은 노영상(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장)·이상대(미래목회포럼 대표회장)·이경옥(예정 대신 사무총장) 목사 등이 낭독했다.

선언문은 "6.25전쟁의 상처는 우리 민족 역사에 큰 아픔으로 남아 아직도 한반도 평화통일의 큰 장

애가 되고 있다"면서 "6.25 제66주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참석자 모두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앞장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외에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에 공감하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되는 온전한 통일 시대를 앞당기는 도구가 될 것"을 천명했다.

이후 유만석 목사(실무회장)가 인도한 위촉식은 김삼환 목사의 위촉장 수여와 박무용 목사(예정합동 총회장)의 축사 및 조일래(한교연 대표회장)·장상(WCC 공동회장) 목사의 격려사, 립인식 목사(예정 통합 증경총회장)의 축도, 우순태 목사(사무총장)의 내빈 소개 및 광고로 진행됐다.

축사한 박무용 목사는 "민(民)과 군(軍)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므로 평화통일은 우리 모든 국민의 숙원"이라며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지만 눈앞의 어려움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고 했다.

김진영 기자

“콩고민주공화국 7천부 성경기증 상차식”

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16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시 공세동 반포센터에서 콩고민주공화국(DR콩고)에 불어성경 5324부 키투버 성경 1712부 등 총 7,036부를 보내는 콩고민주공화국 성경 기증 예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예식은 캐나다 크리스찬월드와 하와이 한인기독교총연합회, 교문교회 등이 후원하여 불어로 발행하여 콩고에 기증하게 되었다.

컨테이너에 성경상차식에서 장헌일 목사(캐나다스코필드재단 한국이사장, 생명나무교회)는 상차 기도를 통해 "오랜 내전으로 수많은 고귀한 생명이 사망하고 고문과

폭행으로 죽어가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회복을 돕는 콩고성경보내기 사업을 통해 수많은 국민들이 말씀으로 회복되어 하나님께 소망 두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기도했다.

대한성서공회 호재민 부총무는 최대원 원로목사(교문감리교회)와 장헌일 목사, 장세현 목사(하와이한인기독교총연합회 회계)에게 불어 성경을 증정했다. 한편 이날 컨테이너에 실어 보낸 성경전서는 6월말 부산항에서 선편으로 운반되어 9월 초 콩고공화국 마타디(Matadi)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수민 기자

2016 미주기독교 대학박람회

<p>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p> <p>L.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및 ATS 정회원)</p> <p>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S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p>	<p>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HE, 정회원, ATS, 종합원 기독교학위(BA), 목회학석사(M.Div), 신약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112131407-4699 <p>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영달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 643-0301 / Fax (323) 643-0302 www.aeu.edu/info@aeu.edu / admissions@aeu.edu</p>	<p>미주대한신학대학</p> <p>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p> <p>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p>	<p>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p> <p>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p> <p>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p>
<p>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p> <p>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p> <p>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du www.chongshinusa.edu</p>	<p>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p> <p>TRACS 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p> <p>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p>	<p>솔로몬대학교</p> <p>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p> <p>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어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p>	<p>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p> <p>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p> <p>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p>
<p>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p> <p>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p> <p>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p>	<p>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p> <p>With the world! To the world!</p> <p>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p>	<p>FULLER THEOLOGICAL SEMINARY</p> <p>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p> <p>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p>	<p>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p> <p>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p> <p>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신학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허가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 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p>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이희철 담임목사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남가주새소망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500 Montebello Blvd., Rosemead, CA 91770

고송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ur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이훈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173 E.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최승욱 담임목사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이승준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사우스 베이 지역

이창민 담임목사
L.A. 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살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강신선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힘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여호와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어라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방수민 담임목사
베다니한인교회
문학받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윤대혁 담임목사
사랑의빛선교회
주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사랑의빛선교회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박정환 담임목사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김민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West Hills Presbyterian Church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최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쿠르드 자치구에 모여 있는 이라크 난민 아이들.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전 세계 난민 수 6천 5백만 명”

유엔난민기구, ‘세계 난민의 날’ 맞아 발표… 英·佛 인구보다 많아

[1면으로부터 계속] 세부적으로 망명 신청을 하고 대기 중인 사람이 320만 명, 난민이 2,130만 명, 강제 이주자가 4,080만 명 등이다. 전 세계 인구가 약 73억 4,9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113명 중 1명꼴로 난민인 셈이다. 규모로 따지면, 영국(6,470만 명), 프랑스(6,440만 명), 이탈리아(6,980만 명) 인구보다 많다.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와 아프가니스탄 등 30~40년간 내전이 계속되는 지역을 비롯해 시리아, 남수단, 예멘,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 최근 분쟁이 심해진 지역의 상황과, 냉전 이후 난민을 거부하는 추세가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필리포 그란디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는 “전쟁과 박해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곳을 잃고 난민이 되고 있는데, 그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소들도 늘고 있다”면서 “매년 많은 난민들이 죽고 국경은 봉쇄되고 있다”고 말했다.

난민 수를 국가별로 보면 시리아가 약 490만 명으로 가장 많고, 아프가니스탄 270만 명, 소말리아 110만 명 등이다. 이들 3개국의 난민 수는 유엔 관할 난민의 절반을 넘는다. 강제이주자 수는 콜롬비아 690만 명, 시리아 660만 명, 이라크 440만 명 등이다. 지난해 지중해를 건너 유럽에 도착한 난민 수는 100만 명을 넘었으나, 실제로 전 세계 난민의 86%는 분쟁 지역에서 가까운 저개발국 혹은 개발도상국에 거주 중이다. 전 세계 난민의 51%는 어린아이들로, 부모 없이 망명 신청을 한 어린이도 98,400명에 달한다. 지난해 20만 1,400명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2014년 12만 6,800명과 비교하면 늘었으나, 1990년대보다는 적다. 재정착 난민의 비율은 2014년 0.73%에서 2015년 0.66%로 낮아졌다. 강해진 기자

“머리 이식 수술’ 시도 눈앞”

비윤리적이며 무모한 시도… 윤리논쟁 불러와

지난해 세계 의학계에 충격을 줬던 ‘머리 이식 수술’과 관련된 연구 논문이 추가 공개된 가운데, 이를 주도한 런 박사팀 박시킴은 오는 2017년 머리 이식 수술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리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런 박사는 최근 인터뷰에서 “의료팀을 꾸렸고, 수술을 철저히 준비 중”이라고 했다. 준비가 끝나면 언제든지 수술을 시작할 수 있다고 이번 수술에는 이탈리아 신경외과 전문의 세르지오 카나베로 박사와 건국대 김시운 연구 교수도 참여한다. 수술 과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기증자의 머리와 피가지의 신체 온도를 떨어뜨린 뒤, 기증자의 목 부위 조직을 해부해 척수를 절개하고 이를 피가지의 신체에 연결하는 것이다. 앞서 의료팀은 원숭이 머리를 이식한 다음 혈액 공급에 성공했으며, 다만 골수 신경 연결은 이뤄지지 않아 목 부위 아래는 마비 상태에 있었다고 밝혔다. 런 박사는 “윤리적인 문제 때문에 머리를 이식한 원숭이를 20시간 후 안락사 시켰다”면서 이번 실험은 원숭이의 머리를 영하 15도에서 동결할 경우, 수술하는

동안 생존 가능하며 뇌손상 없이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비판 여론도 만만치 않다. 미국 가이젤 의과대학에서 신경학을 가르치는 제임스 L. 버나트 교수는 “머리 이식 수술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 “무모한 시도”라고 주장했다. 기독의료협회(Christian Medical & Dental Associations) 데이비스 스티븐스 박사는 “인간의 머리를 이식하는 수술은 비윤리적”이라며 “성경에 나타난 생명의 거룩함을 믿는다면, 어떻게 윤리적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또한 환자가 처할 위험이 너무 크다”고 우려했다. 머리 이식 수술을 받을 사람은 척수성 근위축증을 앓는 러시아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발레리 스피리도노프(31)다. 이 수술에는 신경외과 전문의뿐 아니라 혈관 전문가, 정형외과 전문의 등 150명 규모의 의료진이 투입된다. 중국 하얼빈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예정된 수술은 시작부터 종료까지 36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비용은 130억원 규모다. 강해진 기자

“총기규제 없이는 외로운 늑대 못막아”

오바마 올랜드 총기난사 현장 방문… 총기 규제강화 법안 통과 촉구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플로리다주 올랜드를 방문해 총기규제 강화없이 ‘외로운 늑대’와 같은 자생적인 테러를 막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함께 올랜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현장을 방문해 희생자를 위해 헌화하고 묵념했다. 이어 희생자 유가족을 2시간 동안 직접 만났다.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어 “강력한 ‘돌격소총(assault weapon)’ 한 개를 가진 한 사람에게 의해 사람들이 죽고 다쳤다”며 “이 살인자의 (범행)동기는 오로라나 뉴턴의 대량살상범들과 다를지는 몰라도 사용한 ‘죽음의 도구’들은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바마 대통령은 상원이 총

기 규제강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는 또 “우리의 정치는 테러리스트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매우 강력한 무기들을 너무나도 쉽게 합법적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왔다”며 “상원의원들이 일어나 옳은 일을 하길 진정으로 희망한다. 우리는 비극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만약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런 대량학살을 계속 더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외로운 늑대’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군사력 이상’이 필요하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앞서 지난 12일 발표한 성명에서도 “이번 참사는 학교, 영화관, 교회, 나이트 클럽에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무기를 누군가 손에 넣기가 얼마나 쉬우니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며 총기 사건을 막기 위한 규제강화를 역설한 바 있다. 하석수 기자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사 창립 12주년 기념 진주보석쇼

펄리우드

비쇼 2



진주의 달 6월 맞이 -
한여름 미리크리스마스
선물용 1만여점 전시판매!

한여름 미리크리스마스 특별 할인품목

진주/유색 브로치
reg.\$199-\$299
▶\$59~\$99

진주/유색 반지
reg.\$299-\$499
▶\$88~\$199

진주/유색 팔찌
reg.\$199-\$299
▶\$59~\$99

귀걸이 ▶\$88부터



여성의 우아함을 돋보이게하는
진주 비드 제품 전품목 세일 전시판매!

경제적인 가격대 진주 제품부터 최고급 아코아진주까지 일본공법 한국세공 고베펄 진주비드제품을 만나보세요



고베펄제품은 레이저공법과 수제품으로 서울 강남고베펄공장에서 세공됩니다. 앞서가는 디자인 정교하고 세련된 세공으로 미국 전지역에서 모든 한인여성들에게 인정 받는 고베펄제품 2016년 신제품을 이번 행사에서 만나보세요



6월의 탄생석 진주! 진주전문회사 고베펄이 진주의달을 맞아 1만여점의 진주보석과 유색보석 홍산호 제품등을 대거 전시 할인 판매합니다. 최대할인폭을 자랑하는 6월 진주의달 펄리우드 행사를 놓치지마세요!

한국세공 진주 3중세트
신상품 대거 출시
서울 강남세공 레이저공법



고베펄 펄리우드 진주보석쇼 행사일정안내



아로마센터 일정
일시: 2016년 6월 16일(목) - 17일(금), 2일간
장소: 아로마센터 5층 대연회장
368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가주마켓일정
일시: 2016년 6월 18일(토) - 26일(일) 까지 9일간
장소: 가주마켓 내 1층 특설매장 (웨스턴 + 5가)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문의 전화 **323.999.1558**

* 영업시간은 오전 10시부터 ~ 8시까지 영업합니다.



고베펠사 창립 12주년 기념 "PEARLWOOD" 빅쇼!!

6월 보석 진주!
 쿨하게
 2줄 진주목걸이로
 멋을 한껏 내자!!
 펠리우드
 진주보석 쇼에
 진주비드 목걸이
 2천여점
 대방출!!



초여름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1만여점 세레나데 LA코리아타운 월셔·웨스턴가를 화려하게 수놓다

등에 갈 때에도 이제는 필수 아이템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좋은 품질의 진주는 어떻게 선별할까? 진주의 품질은 크기가 클수록 가격이 비싸며, 완벽한 원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을수록 좋은 상품으로 분류된다. 여성들이 가장 선호하는 컬러는 화이트 바탕에 '핑크 오버톤'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 여성들은 예전 부터 갈치 빛 색을 크게 선호해 왔다. 최근에는 보석 세팅기술이 다양해져 진주 목걸이 하나만으로 포인트를 줘 더욱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진주전문업체 고베펠이 소비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진주 반지와 귀걸이, 목걸이의 경우 무조건 큰 것 혹은 비싼 것을 고르기 보다는 연령과 체격 그리고 예산에 맞춰 구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한다. 진주보석은 이제 금고에 보관하는 비싼 진주가 아닌 중저가 시대가 도래하므로서 평상시에도 가벼운 옷차림에 착용하여 보고 느끼고 즐기는 최상의 선택 아이템이 되고 있다.



◆펠리우드쇼 가주마켓 일정
 -일시: 6월 18일(토)~26일(주일)
 -주소: :450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 8시

6월의 탄생석 진주, 진주전문 고베펠사가 올해도 진주 비드 목걸이를 대량 방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만큼 그 인기가 여전하다는 이야기이다. 거리를 거닐다 보면 진주목걸이를 한 여인들을 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진주가 6월의 탄생석으로 손색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고베펠사는 이번 펠리우드 진주보석 쇼에 2줄 진주목걸이와 3줄 진주목걸이를 대량으로 제공해 출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6월 탄생석인 진주는 건강과 장수, 행복, 부귀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최근들어 결혼예물의 필수 항목으로 꼽힐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진주보석은 이제 다이아몬드나 순금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평상복에도 잘 어울리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패션 룩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 만큼 어느 보석 보다는 치장에서도 없어서는 안될 보석 아이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진주 목걸이는 단아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을 강조해 젊은 여성들은 물론 중년 여성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 공식석상이나 모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여름학기 학생모집

여름 학기
 2016년 6월 20일(월)~8월 26일(금) 수업
 (여름학기 등록마감 6월 20일까지)

본 기독교 복음선교 연합총회에서는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주 교육국의 승인을 받아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를 진리와 경건이란 학훈을 가지고 설립하고 다음과 같이 2016년 봄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학 대학교 신학 대학원	신학과(BA) - 4년 / 126학점 1) M.Div. 교역학 석사 과정 - 3년 / 96학점 2) M.A. 석사과정 - 2년 / 48학점 3) Th.M. 신학 석사 과정 - 2년 / 48학점 4)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3년 / 48학점 5) Th.D. 신학박사 과정 - 3년 / 56학점
	일반 대학교	1) 선교사 과정 - 2년 / 56학점 2) 평신도 지도자과정 - 1년 / 36학점 3) 평신도 성경학교 - 6개월 / 12학점 4) 채플린 과정 - 소정 과목 5) ESL 과정 - 1년 6) 유치원 교사 및 원장 과정 - 1년
	홈스쿨링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정과 교육의 문제의 대안으로 크리스찬 홈스쿨링 교육을 전문으로 지원합니다. 크리스찬 홈스쿨링은 크리스찬 부모들과 자녀들이 함께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통합적으로 균형 잡힌 성장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성경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의 홈스쿨링은 무너진 가정과 교육의 회복을 위해 앞의 본질을 앞세우고 제자도를 실현하기 소망하는 가정들의 결단과 헌신을 격려하며 견고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small>*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기독교식 홈스쿨링 방식으로 교육학 박사들과 교사들이 전문 지도합니다.</small>

* 입학 첫학기 등록 학생들에게는 80% 장학금을 드립니다.
 * 기독교 복음 선교 연합총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교과 과정 중 50%는 인터넷으로 수업이 가능합니다.
 * 본 학교는 분기별(쿼터제)로 학생을 모집합니다.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CTCS)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213)999-6884(대표전화), (213)272-6031, (213)235-6889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Family 자동차 \$중고차 최고가 매입\$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미사랑
 한의사 Zo'e 조애
 Tel:(213)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심혈관 질환, 간질환, 중풍, 소화기문제, 내분비문제, 부인병, 고혈압, 당뇨, 부종, 알러지, 신장병, 각종통증, 갱년기, 생리통, 생리불순 (아들 원하시는 분)

2120 W.8th St, #208, LA, CA 90057(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주님미디어닷컴 전도용품 및 배너 할인행사
 오픈 기념
 CD Printing * Papersleeve=\$300
 원형배너 스탠드포함 \$65 (할리슈팅 제외한 전 품목 Free Shipping!!!)

미디어선교에 앞장서는 탐미미디어에서 귀 교회의 성도님들의 사역과 사업을 더욱 효과적으로 성기 위해 기독교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주님미디어닷컴을 새롭게 오픈하였습니다. 보다 편리한 구매와 저렴한 가격, 세련된 디자인으로 귀 교회와 성도님들께서 칭기시는 사역과 사업을 성기도록 하겠습니다.

junimedia@gmail.com
 Call : 323.265.0244
 CD, DVD 제작전문, 각종 인쇄, 현수막, 각종 서신(심내외, 차량), 제작, 반죽물인쇄 전문

교/회/렌/트

200석 예배실, gated 넓은 주차장, 식당
 부엌시설, 유치반, 청년반, 유아반
 일요일 예배, 수요일 저녁 사용 가능 (Fwy 5 & 91근처)
 Tel:(626)203-8008, (562)677-6005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BOOK BINDING
DIGITAL PRINTING
BANNER / BOARD
FLYER / BROCHURES
BUSINESS CARDS
BOOKLETS

책자제본
디지털 인쇄전문

EXCELPRINTING 213.383.7733
 2500 W. 8th St. #100, 101 Los Angeles, CA 90057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현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제 2의 심장 "발" [카이로메아]
CHIROMEA

발에 대한 무관심으로 깨어진 신체의 내부 장기 및 근 골격계를 이제는 카이로메아로...

인체공학적인 설계
 척추에 미치는 중력을 3방향으로 분산 : 디스크, 관절염 등 척추질환 예방
 지속적으로 용천혈을 자극함으로 기력 증진

카이로메아를 착용하셔야 할 분
 조금만 걸어도 힘이 없거나 발바닥, 뒤꿈치, 무릎 및 허리가 아프다.
 발바닥 또는 특정 발가락에 티눈, 굳은살이 생기거나 신경이 압박을 받는다.
 성장기 어린이의 기형적 걸음걸이의 균형과 성장 촉진이 필요하다.

사용방법
 남녀 구분없이 표준화 되었습니다
 대(L)9 1/2 이상, 중(M)9-6 1/2, 소(S)6 1/2이하

가루간장
SOY SAUCE POWDER

SOY SAUCE POWDER는 유전인자를 변형하지 않은 콩으로만 만듭니다.

콩이 95% 들어 있어 영양분이 풍부
 No 방부제, No 화학조미료 안심!

국제 건강 가족 동호회 Tel(213)382-9714, 382-2827
 Fax(213)382-2405 244 S. Oxford Ave., No. 2, LA, CA 90004

골든씰 천연항생제
Golden Seal

골든씰은 약초중의 약초로서 (KING OF KINGS) 동서양을 막론하고 모든 약초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약효를 지녔다. 항생제가 필요한 모든 경우에 사용하며 감기, 폐렴, 신종플루, 독감, 위장질환, 간염, 간경화, 중이염, 방광염, 습진, 백선 등 각종 염증 피부질환에도 좋음. 특히 마약 중독성에 최고의 해독제로도 알려져 있다.

CHARCOAL
 숯가루와 질병 적음

알레르기, 아토피성피부염, 습진에 숯가루 적용
 차콜은 인체내의 독성 성분을 제거
 가정 상비 식품 필수!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치아미백 3대째 기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역!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100% 천연성분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형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병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 5,997,908

PRO-Z USA Inc. 213.434.1170
 미국 공식 판매처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Special Price
 1병 \$89 + tax
 3병 \$249 + tax
 6병 \$474 + tax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한수희 칼럼(8)

피할 순 없어도 선택은 가능한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은 없다. 보통 10대는 학업, 20대는 연애와 취업, 30대는 직장과 주택 마련, 40대는 명퇴와 자녀문제, 50대는 노후 준비, 60대 이후로는 건강문제로 각각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한다. 결국 스트레스의 종류는 대부분 돈, 인간관계, 건강이라는 3가지 범주에 속한다.

스트레스를 받는 수많은 요인들을 일일이 제거하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피할 수 있을까? 그것은 불가능하다.

스트레스는 피하고,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문제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문제의 엉뚱한 원인에 집착하거나, 단순히 해소되기만을 원한다. 그러다보니 결국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망각한 채로 사라지지 않는 스트레스 안에서 맴돌고 있다.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어떻게 관리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시간, 돈, 건강, 인간관계 등을 잘 관리해서 문제거들름을 줄여나가면 되는 것일까?

물론 제반의 관리를 통한 균형잡힌 삶이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지만, 스트레스 대처를 위한 핵심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관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부정적 스트레스로 인해 낭비되는 시간을 바로바로 동력 에너지로 바꿔 관리하는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역경 지수가 높으니, 성공하려면 스트레



한수희 강사
기독교 상담 세미나

스가 필수라는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반응에 대한 폭넓은 인식의 필요성과 스트레스를 이겨낼 힘의 원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로 인한 일반적인 신체 반응은 심장이 두근거리며, 식은 땀이 나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이다. 보통의 경우 이러한 신체반응을 불안이라 여기고 압박에 잘 대처하지 못하는 신호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기상황에 대처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이다. 쿵쿵거리는 심장은 민첩하게 행동하도록 준비를 시키는 것이고, 호흡이 빨라지는 것은 뇌에 산소를 더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 반응이 심박수를 증가시키고 혈관을 수축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유지되는 것은 당연히 심혈관질환을 유발한다. 만성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독이 되는 것은 그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몸안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준비해 놓으셨다. '포용호르몬'이라는 짝꿍한 별명을 갖고 있는 신경전달 호르몬인 옥시토신이 하나의 증거다.

이 호르몬은 우리의 사회적 본능을 조절해서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도록 하며, 공감능력을 높이고, 가까운 사람을 기꺼이 돕고 지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옥시토신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더욱 멋진 것은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사회적 접촉과 지지에 의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도울 때 이 호르몬을 더 방출하게 된다.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이 보다 건강해지는 것이다. 그로 인해 우리는 스트레스로부터 더 빠르게 회복된다.

스트레스 반응이 스트레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우리 몸에 이미 내장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더구나 그 메커니즘이 이타적 삶을 통한 인적 관계에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다운 방법이지 않은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라고 명하신 것은 어찌보면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이드일 것이다. 어느 유명한 교수님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9가지 방법에 대해 강의를 한다고 해서 수많은 학생들이 모였다. 교수님의 짧은 강의는 다음과 같았다.

"이웃을 도우며 살라. 이와같이 8번을 더 해라."

보살핌은 회복력을 만든다. 나를 회복하게 하고, 타인을 회복하게 한다. 내 삶의 스트레스에 파묻혀 있지 말고, 그곳에서 일어나고 더욱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선택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자!

•김병규 칼럼

사명의 삶을 사는 당신



김병규 목사
시애틀명성교회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리고 사명을 이루며 사는 사람은 일생의 승리요, 삶의 성취감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깨달았는가?"를 내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사명이란 "심부름 사"자에 "목숨 명"자를 써서 사명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사명이란 "심부름하는 목숨"이라는 뜻이다. 누구의 심부름인?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그리고 사명이란 이 땅에서 인생의 시간을 사는 동안 내가 해야 하고,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이 주신 내 존재의 목적을 말한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약 사명감 없이 없는 대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그 인생의 가벼움이란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다! 인간은 결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존재인 것도 아니다. 쉽게 말하자면 되대로 살아가는 것도 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간은 인간 존재의 이유와 존재의 가치와 존재의 목적이 분명한 사명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비전이 있다. 세상을 따라 주어진 풍조와 유행을 따

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 존재의 당당함과 실존적 존재의 근거를 가지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또한 사명이 분명한 사람은 타인에 의한 세계관에 지배받지 않고 주체적인 실존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존재는 바닷가의 수많은 모래와 같다. 수많은 모래가 있지만 똑같은 입자를 가진 알갱이는 하나도 없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수많은 눈을 보아도 그렇다. 그 결정체가 모두 다 다르다. 심지어는 수천 수억의 나뭇잎도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양성을 인정하셨고 그 다양성 만큼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지금까지 지내온 수천년 역사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질 미래의 역사 속에 나와 같은 존재는 오직 나 한 사람 밖에 없다. 나는 나의 고유성이 있고 절대성이 있다. 나는 타인과 비교되어진 그런 상대적인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무나 귀중한 존재이다.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각자가 담당해야 될 사명을 주셨다. 이 사명을 깨닫는 것이 사람의 존재의 근거인 것이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확신하고, 가슴에 사명의 불을 뜨겁게 붙이기를 바란다. 사명감에 투철하고 치열한 사명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당신을 만나고 싶다.

•김은유 칼럼

상한 감정의 치유기도 '죄책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 시켰느니라"(롬 8:2).

인간은 누구든지 선천적으로 죄책감을 가지고 산다. 아담도 범죄한 후에 죄책감에 시달려 동산 가운데 숨었고, 가인은 그 죄책감으로 울부짖었다. 또한 회복되어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는 언제나 죄책감이 상존하고 있다.

신앙생활의 문제로 인한 하나님에 대하여, 크고 작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죄책감이 심화되어 '불안, 신경증, 강박적인 상태'를 가지고 산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지 못하게 되고 만다.

특히 비논리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확대한다면 우울감, 기도에 대한 불확신 등을 가져올 수 있다. 지나친 죄책감은 치유의 대상이다. 다음과 같이 기도해 보자.

◆고백의 기도

주님, 저는 과거에 ○○한 죄를 짓고 난 후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견디기 힘들고 괴로운 죄책감으로 인해 죽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은 잘못을 나 스스로 확대하여 자신의 내면을 병들게 만들고 과거의 잘못된 실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기억 속의 죄책감에서 자유롭고 싶는데, 나의 불법이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고 죄악된 불륜이나 불잡고 놓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심일조를 때어 먹은 것과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렸는지 기억을 다 하지 못하지만, 그것들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이로 인한 죄책감 역시 해결이



김은유 원장
(사)국제전인목회상담연구원

되지 않습니다. 죄책감은 나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고 원하지 않는 잘못된 상상을 하게 만들어, 정신도 육체도 지쳐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나의 삶에 개입해 나를 참소하고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듭니다.

이제는 죄책감으로 시달리는 것

도 지겹고 죄책감에 눌려 슬퍼하는 것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치유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저의 가슴을 가득 채우셔서, 저의 내면이 주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기도

그동안 나의 잘못된 믿음을 생활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미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게 하시고 나를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무엇이 되었든 사람에게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시며, 나 자신에 대한 죄책감에서도 자유하게 하소서.

나의 잘못된 과거의 그 어떤 행위

에서도 이제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하셔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아 알게 하소서. 죄책감으로 상처받은 우리 가족에게도 예수님의 보혈로 덮사오니, 이 죄책감이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확대되지 않게 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통해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서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죄책감에서 치유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명령과 선포

나의 죄성을 가지고 나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은 악한 영아! 예수님의 피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 너를 명하노니 지금 내 인격에서 떠나가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느니라!

Sales • Rental • Service • Free Estimate • Supplies

1¢
최저 1장

**복사기 판매
렌탈 서비스**

FMB RENT PROGRAM

- SERVICE는 물론 TONER, DRUM ROLLER등 모든 PART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정기적으로 SERVICE를 실시합니다.
- 4시간내 A/S를 신속 처리

복사기 무료

최신식 디지털
COLOR
COPY MACHINE

칼라카피어 렌탈전문!

**칼라
카피**

FBM

First Business Machines, Inc

전화문의 (800)582-3321 / (562)802-9044

Fax : (562)802-8094
13245 E. Rosecrans Ave., Santa Fe Springs CA 90670

www.fbmcopiers.com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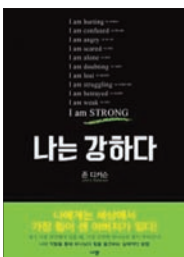


신간 추천

나는 강하다

존 디커슨 | 규장 | 28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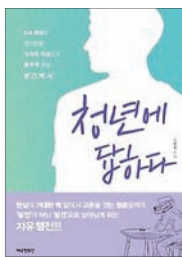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고통이 찾아오면 매번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한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가? 혹 힘들고 어려운 문제에 집중하느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 책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청년에 답하다

신동열 | 예수전도단 | 2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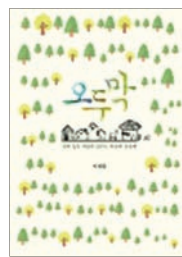
이 책은 청년 사역자 신동열 목사가 많은 청년들과 강의로 만나고 상담하면서 청년들의 일상에 킁킁 물어봐서 얻어낸 것들을 정리하여 쓴 것이다. 매 챕터마다 청년의 질문과 저자의 답을 시작으로 현실에서 고통하는 청년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과 사회 구조적 맥락을 짚어 가며 그 대응법을 제시한다.



오두막

이재영 | IVP | 264쪽

30여 년간 출소자, 알코올 중독자, 무너진 사람들과 함께 사랑을 일구며 살아온 이재영 대표(오두막 공동체)의 감동 스토리. 이 시대는 말씀에 순종하고 타자를 환대하기보다는 실천을 미루며 변명하기에 급급하다. 그러나 평생 순종하며 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있다. 이 책을 통해 "말라버린 시대의 가슴을 적시는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이웃의 이야기를 만나게 될 것이다.



선교사 팀 사역과 갈등 해결

심재두 | 좋은씨앗 | 200쪽

선교사들의 사역은 연합했을 때 더 빛을 발한다. 그럼에도 선교 현장에서 팀 사역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이라는 벽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동료 선교사와의 갈등을 가장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꼽았다. 저자는 20여년 간 선교지에서 의료 사역과 교회 개척을 해왔다. 그 경험을 녹여 낸 이 책은 선교사 팀 사역의 이정표이다.



REVIEW

구입문의 LA : 조이기독교백화점 T. (213)380-8793 OC : 생명의 말씀사 T. (714)530-2211

“내가 끝장난 자리에서 만나는 예수의 십자가”

더 내려갈 곳 없는 밑바닥에서...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십자가의 은혜

미국으로 이민 가서 교회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미주지역 이민 교회의 모든 기록을 깨고 2,000명이 모이는 대형교회로 급성장하여 '교계에 혜성같이 나타난 지도자'라 불렸던 이현수 목사의 고백록! 현재 성경 66권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쳐 주님의 제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가 외치는 '십자가의 도(道)'이다.

팬클럽을 몰고 다니며 자신의 인생에는 결코 실패란 없을 것처럼 승승장구하던 그가 어느날 가정과 사역, 재정적 실패를 넘어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실패한 존재적인 패배자라고 말하기에 이르렀다. 길고 긴 '영혼의 어두

운 밤'을 지낸 후 고통의 끝에 도달해 마침내 "내가 고통의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50평생 전 삶을 통해 절대 절망과 완전한 실패를 통해 철저히 깨 십자가를 통과한 후 성공 그 이상의 것, 인생의 참된 도(道)와 진리(眞理)를 내놓게 되었다.

오직 하나님의 손아래 있을 때 우리의 실패와 성공이 위대한 삶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그는 이 책에서 복음과 구원을 갈망하는 모든 구도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며, 참된 인생의 의미를 찾아 헤매는 수많은 실패한 영혼들에게 해답과 소망을 풀어놓아준다. 특별히 지금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는 사람에게 미래를



위대한 실패 이현수 규장 | 240쪽

향한 성찰의 지혜를 제공한다. 인생에서 진실로 '내 자아가 끝장난 곳에서 만난 예수의 십자가'를 말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

어야 할 길이 본서에 열려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다. 우리 가운데 실패를 한 믿음의 동지들과 친구들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그들이 실패해서 완전히 바닥을 칠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라고 한다. 또한 누가 실제로 망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힘들겠지만 완전 쫓겨 나갈 때까지 내버려두라고도 한다. 더 나아가서 만일 우리의 자녀들이 실수를 했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주라. 물론 이 말은 남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냥 방관하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다. 또한 모든 실수와 죄를 무조건

다 묵인하고 용납하라는 뜻도 아니다. 다만 우리가 선불리 판단하거나 응징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말이다. 저자는 이 책에서 죽음은 모든 일에 종지부를 찍는다. 내가 죽으면 모든 인간적인 노력과 망상이 끝장나고 자아와의 전쟁이 종결된다. 죽음은 인생의 끝이요, 가장 밀창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상은 더 내려갈 수 없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통해 자아가 처리된 사람만이 진정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되뇌고 있다. 이영민 기자





VBS T-Shirt

No Set up fee, Only \$4.50 each!

어린이용 흰색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Special Event
어린이 VBS 풀칼라 프린트 티셔츠 100개 이상 주문시 선물용 VBS CD 무료 증정

VBS CD
(Copy & Print)
\$50 (50개)



VBS, 수련회, 단기선교, 체육행사등을 위한 T-shirts Print!!!
교회이름 넣어 드립니다. (Custom 디자인)

각종 Invitation card, 판촉물, Banner, 수건인쇄,, 디자인 및 인쇄 가능합니다.

Tel:323.265.0244 ◆ 3170 E. 11th St. LA, CA 90023 ◆ topmedia153@gmail.com

[추천도서]

“강단을 복음으로 풍성하게”

성경 가르침 힘들어하는 이유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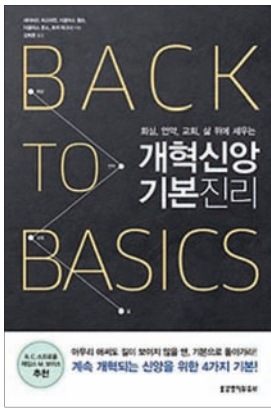
이 책은 개혁신앙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 주는 책이다. 개혁신앙은 신학의 한 분과가 아닌 성경에 충실한 진리임을 이 책은 방증한다. 삶과 연관된 것이 진정한 개혁임을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미국 보수 신학의 대변자이자 수호자였던 그레샴 매이철키 설립한 교단의 신학이 무엇인지를 잘 대변해 준다. 스필전은 칼빈주의를 오직 성경적 기독교에 대한 별칭이라고 평가했다. ‘회심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글은 더글라스 윌슨이 맡았다. 윌슨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힘들어하는 이유를, 그것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20쪽).

그는 무엇이 진리인지 결정하는 기준이 오직 성경, 그리고 전체 성경이어야 한다고 논증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책임을 파괴하지 않음을 윌슨은 말해 준다(30쪽). 성경에 대한 모든 도전은 바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윌슨은 자유의지보다 자유로운 사람에 대해 말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라고 말한다(39쪽).

루터는 인간이 노예의지를 가졌음을 간파했다. 인간의 자유의지 능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윌슨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분명하게 논증하고, 바울이 은혜와 행위를 대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57쪽).

오늘날 인간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는 자들은 헛필드가 말했듯 ‘씩은 동아줄을 가지고 하늘에 오르려는 것’임과, 하나님의 은혜를 무위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개혁신앙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5장에서 윌슨은 제한 속죄를 잘 설명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범위만큼 교회사에서 논쟁적 이슈도 없었는데,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면서도 자유롭게 복음을 선포해 모든 죄인들을 초청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위대함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내 양을 알며, 택하신 성도를 위해 죽으셨음을 명백히 밝힌다. 성령의 부르심에는 유효한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이 있는데, 윌슨은 이 둘을 잘 구분하고 있다. 더글라스 존스는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갈 것을 2장에서 가르치고 있다. 언약 신학은 난해한 주제인



개혁신앙 기본 진리
더글라스 윌슨 외
생명의말씀사 | 400쪽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꼭 정립하고 이해해야 할 주제기도 하다. 성도 구원의 초석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는데, 그 자체가 하나님 사랑의 증표다. 존스는 언약이 귀중하고 친밀하고 신실하며, 사랑으로 맺어진 결혼과도 같은 연합과 교제라고 가르친다(105쪽). 그는 언약 사역의 전개를 다루고 새 언약과 그 성취를 말해 준다.

이 책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는 탁월한 작업을 성취하고 있다. 언약에 관해서는 피터 릴백이 쓴 <칼빈의 언약사상(CLC)>라는 책도 아주 좋고, 팔머 로벗슨 교수의 책들도 큰 도움이 된다.

로저 와그너는 3장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것을 권고한다. 그는 교회와 예배와 직분을 다루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배 회복이 절실히 요청된다. 하나님 영광을 구해야 할 예배가 사람의 기쁨 추구로 변질되고 있다.

예배에 관해서는 <개혁주의 예배학(P&R)>이라는 책이 많은 도움이 된다. 사람이 구원을 얻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 위함인데, 성경에는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가 징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소개되어 있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며, 성도의 영혼이 살고 죽는 것이 그에 달려 있다. 데이비드 하고피언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과 닮아가는 삶,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과 왕과 제사장 같은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다루고 있다.

하고피언은 종교개혁자들의 계승자로서 복음주의자들이 ‘오직 성경’이라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잊었다고 지적하며, 성경은 우리의 모든 믿음과 행함에 있어 최고의 기준임을 천명한다. 그는 성경과 동등한 자리에 둘 수 있는 것이 결국

아무것도 없으며, 성경을 보충하려는 우리의 시도는 결국 성경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며 끝난다고 경고한다(375쪽).

여성 목사 안수를 성경이 금하고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아무 의미가 없다. 성경이 편입되었다고 믿는 사람과는 성경에 대한 논의 자체가 무의미하다. 성경이 명백히 금하고 있는 동성애에 관한 인권 측면의 접근은 방향성을 잃은 것이다.

하고피언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설명한다.

“신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린다. 우리가 연합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고 우리는 그분께 연합되었기에 우리 또한 과거의 죄에 대해 죽었다.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서 해방된 것이며 현재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고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더해질지 모르는데, 이것은 죄 가운데 계속 살 수 없다(310쪽).”

신학은 성경에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는 한, 그것의 의미를 상실한다. 교회가 서고 무너짐이 바로 신학과 성경에 달려 있다. 스코틀랜드 정통 장로교회에서는 예전에 예배 전 집사님이 성경을 들고 와서 강단에 올려놓았는데, 그것은 설교자가 오직 성경에 있는 것만을 말해야 함을 의미했다고 한다.

이 책은 오늘날 잊히고 상실되고 있는 귀한 진리들을 복원하고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귀한 책이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그들이 가르친 진리와 살아낸 삶이 무엇인지를 알고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책은 참으로 유용하다.

개혁신앙의 기본 진리 위에 우리들의 신앙이 굳건히 설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강단은 다시금 복음으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기본이다.

오늘날 교회가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이 책은 잘 보여 준다. 특히 옛 진리를 현대 저자들이 오늘날에 맞게 집필했다는 것이 이 책의 장점이며,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필체로 알기 쉽게 일목요연하게 진리를 정리해 놓았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것이 아닌, 진리의 초석 위에 굳건히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싶은 모든 성도에게 적극 추천한다.

김재윤 목사
크리스찬복스 명예편집위원

[북소리]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의미는?”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의미와 동성애와 교회의 가르침 다뤄

이 책은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작고한 스탠리 그랜츠가 동성애에 대한 역사를 다루고, 이것의 성경적인 의미는 어떠하며 교회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다루고 있다.

1장 ‘현대의 관점에서 본 동성애’에서는 동성애가 발생할 수 있는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의학적인 근거에 있어 여러 학자들의 주장과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2장 ‘성경과 동성애: 주해 관련 논의’에서는 동성애와 관련된 중요한 텍스트를 다루고 있는 본문에 대한 현대 신학자들의 해석과 전통적 해석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여기서 동성애의 성경적 근거가 되는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와 ‘사사기 19장 레위인과 그 첩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 본문이 동성애로 인해 도시가 멸망한 게 아니라, 당시 거주민들이 환대에 관한 사회 규칙을 철저히 무시하고 손님들에게 가장 모욕적인 대우를 한 것이라는 문화적 배경으로 해석한다.

또 당시 전쟁 승리 후 패자들에게 항문 성폭행을 하여 굴욕을 주었는데, 이런 전쟁적인 해석도 포함하여 동성애가 단순히 쾌락을 넘어 우월성을 입증한 것이라 주장한다.

이에 대해 저자는 에스겔 16장과 유다서 등 성경 전체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기브야의 죄가 단순히 성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심각한 죄임을 드러낸다. 그리고 로마서 1장 26~27절에 나오는, 바울이 이방사회를 비판하면서 동성애를 비판한 부분이다.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은 당시 제국 안에 널리 퍼져 있던 습관이라고 말하지만, 저자는 바울이 모든 형태의 동성 간 성행위는 죄라는 것을 밝힌다고 한다. 그 외에도 예수님은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고 현대 학자들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변명을 하는데, 저자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적합한 성과 하나님의 창조 의도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정확한 변증을 해낸다.

3장 ‘동성애와 교회의 가르침’에서는 교부와 중세시대, 그리고 중



환영과 거절 사이에서
스탠리 그랜츠
새물결플러스 | 312쪽

교개혁 이후와 현대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들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교회가 한결같이 동성애를 죄로 여겨왔다고 말한다. 4장 ‘동성애와 성경의 권위’에서는 성경이 동성애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규범적이라고 말하며, 언약과 사랑과 정의와 해방에 의해 성경 전체를 보도록 한다고 한다.

5장 ‘동성애와 성윤리’에서는 성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결혼은 전적인 타자와의 연합이고 결핍의 충족이며 하나님과의 연합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한다. 또 우리의 성교는 제의적 행위를 내포하고 있다며 그 거룩성과 엄격함을 이야기한다. 따라서 동성끼리의 성교는 죄라는 것이 성경적으로 성립된다. 6장 ‘동성애와 교회’에서는 동성애자들에게 교회 회원을 주는 것과, 동성 결합, 성직 임명, 그리고 시민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고 있다.

현대 교회는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여 동성애자들을 회원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곳도 있고, 반대로 동성애를 죄로 여기지 않고 소수자들의 인권 보호와 주님께서도 세리와 창기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것을 근거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는 곳도 있다. 여기서 저자는 우리에게 제3의 길을 찾도록 노력하고 제시한다. 우리가 동성애를 정죄하는 일과,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환영하고 받아 주고 지지해 주는 것이 동시에 가능하며 또 다른 길을 제시한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복스 편집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 우리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

-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 주소: GBMW (체코모더명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240면 / 11,000원

안나가? 가나안!

— 소강석 지음 —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06년 월간 문예소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아침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6 한국기독교출판 최우수상, 마틴 루터 킹 국제평화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천상병문학대상을 수상한 바 있고,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상, 대한민국 보존문화상, 자랑스러운 한국인상을 받았다. 일시간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신앙의 왜곡과 일탈, 안티 현상의 분출과 영혼의 사막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으로 가득한 가나안이라는 단어를
오히려 교회를 안나가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변형해 놓은 세대에 대한 통렬한 지적과 분석,
그리고 진정한 가나안신자의 삶에 대한 내러티브!
참된 가나안신자의 축복된 삶의 원리가 담긴 쉽고 흥미로운 비서!
이 책을 펼치는 순간, 당신 삶에 축복의 시냇물이 흐른다.

사탄의 영적전쟁

사두다리 예배자

284면 / 10,000원

레위기상의 정복하라

레위기의 신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317면 / 13,000원

클란출판사 • 한글인터넷주소: 클란출판사 • 홈페이지: www.klan.co.kr
• 서울 중로구 이화동 184-3 • TEL : 745-1007(내)

KWMC Completed 'All by God's Grace,' Say Organizers Korean Am. Medical Mission Conference to Convene in Irvine

BY RACHAEL LEE

Some 40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e recent Korean World Mission Conference (KWMC) that took place earlier this month at Azusa Pacific University gathered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on Tuesday morning to discuss and evaluate the results of this year's conference.

The organizers first expressed regret regarding the aspects of the conference where the results came up short in comparison to their expectations, and shared the challenges they faced in the process of planning for the event.

The first aspect they mentioned was the turnout at the conference. Some 2,900 in total were registered for the event, and some 3,000 attended night sessions, according to the organizers. The number fell short of their hopes for some 7,000 to attend the night sessions.

A number of challenges may have contributed to the less-than-expected turnout, they said. First, KWMC, which takes place once every four years, took place for the first time in Southern California this year, when all previous conferences had taken place at Wheaton College in Illinois. The difference in culture in the Korean community of Southern California, as well as the lack of awareness of KWMC in this region, may have hindered a wider participation in the event, organizers said.

"Azusa Pacific University is located in an isolated area, and the distance that people had to travel to get to the conference with traffic may have hindered some from attending," explained Rev. Paul Gihong Han, the senior pastor of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who also led the planning process in Southern California.

Another aspect that organizers



Organizers and participants of this year's KWMC gathered to evaluate the conference at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discussed was the low turnout in the English track of the conference. The difference in attendance between the Korean-speaking track and the English-speaking track was noticeable. While some 2,500 attended the main sessions of the Korean track, about 150 attended the English track sessions. Moreover, many Korean American pastors in the region were unaware of the event.

Rev. Suk-Hee Ko, the secretary-general of the conference, pointed to the date of the conference as a possible reason for the lack of attendance from the younger crowd. In an evaluation report, he wrote that the fact that the conference took place in early June may have prevented students and parents of students who were not yet in vacation from attending.

"Normally, we should have formed a completely separate organizing committee for the Korean American leaders and lay members in the region, but we were unable to do that for this year's conference," added Han. "This is something we want to focus on for

the future conferences to come."

Many of those who did attend the conference, however, seemed to have had a positive experience. Elijah Kim (14) from Cerritos Presbyterian Church and Gunwoo Kim (17) from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said at the conference that they both attended because of their parents. But having come to the conference, they shared that they learned much from the variety of speakers.

Elijah Kim found a session with Brian Kim, a worship leader at Onnuri English Ministry in Seoul, particularly inspiring.

"It was cool because he uses his talents for God," he said. "And it showed me that you don't have to be a pastor or missionary — you can just use whatever talents you have to live for God."

Han explained that though there were particular challenges in the planning process for this year's conference, he was personally "extremely satisfied" at the turnout, and said that the entire process was "all by God's grace."

"Having the conference in a

completely new venue, and having thousands of people gather — from as young as 100 days old to as old as 90 years old — there was room for an accident to have happened, but I'm thankful that there were none," Han explained.

"And, maybe it's because they were talking to me, but there were many people who approached me and said that they were blessed through the conference and that it was a rejuvenating time," he added. "I'm grateful to hear that, and I'm also grateful that 50 attendees have committed to become missionaries."

Dr. Timothy Park, the director of Global Connections and professor of Asian Missions at Fuller Theological Seminary, expressed hopes for future conferences.

"I hope that the conference will not end at just being a conference, but that it will become a catalyst in the mission movement all over the world; one that gauges the direction of the movement and allows missionaries to more effectively strategize and share the gospel," Park said.

In Honduras, Taekwondo Paves Way for Ministry

BY ANDERSON KIM

A door for missions has been opened at a public school located in the Southern Central region of Honduras. Young-Kap Kwon, a missionary sent to Honduras three years ago by Bethany Presbyterian Church in Atlanta and the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of the PCUSA, has been able to raise up and invest in teenagers at a public middle and high school through Taekwondo and the Bible.

"It is impossible to do missions within a public school," shared Kwon. "But Taekwondo opened up a path for missions to happen within the school. Typically, missions through education required tremendous amounts of finances and resources to purchase the land for the school, build the school building, recruit teachers and students, and maintain the school. But if we can do missions within a public school, we don't need to

build a school nor recruit teachers or students. We don't need finances to maintain the school. We can carry out a missional ministry by selecting the top students within the school, and through them, we can build up a church that has been renewed by the gospel and raise up leaders for the nation."

This kind of ministry was also made possible because Bethany Presbyterian Church had donated the Taekwondo Mission Center to Perula Ulua Middle and High School, a public school located in El Progreso.

The rights to the property belong to the school, but Kwon has the right to use the center, and the two organizations have agreed that Kwon can use the center freely to carry out ministry. The church also contributed financially in building the center.

The groundbreaking ceremony for the center took place on June 20 of last year, with numerous



Students at Perula Ulua Middle and High School learning Taekwondo at the Taekwondo Mission Center. (Photo courtesy of Bethany Presbyterian Church)

reporters,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the mayor, and even members of the military present. The students in Kwon's Taekwon-

do classes have also won first, second, and third place in national competitions over the past two years.

Atlanta Korean Church Ordains Youth Pastor John Park

BY SOOYOUNG YOON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held a ceremony on Sunday for the ordination of one of its youth pastors, John Park.

"I commit to carry on the ministry that has been given to me in obedience to Christ, and to follow Jesus in my daily life, loving my neighbors and promoting peace, unity, and purity within the church," said Park in his ordination vows.

The ceremony consisted of praise and worship, a time for prayer, a sermon preached by Dr. Kevin Park, an associate dean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a word of commendation for the ordained

pastor, the ordination vows, words of encouragement, and musical performances, among others.

"Moses confesses that he will not act before God does," said Dr. Kevin Park during his sermon.

"This is referring to walking with God. Let us learn what it means to be intimate with God through Moses," Dr. Park continued. "Just as God exists in relationship in the trinity, it's important to have intimacy and good relationship with our Lord."

"It's difficult for the Korean immigrant church to raise up the EM [English ministry]," said Rev. Hyun Sung Cho of Canaan Korean Presbyterian Church in Atlanta, who gave a word of encouragement at the ceremony. "And it's

even more difficult to raise up an ordained pastor in a bigger church. But I congratulate you on this ordination. I hope you will continue to support Pastor Park and pray for him. I hope that you will not look at him through a first generation Korean's perspective, but that you will always pray for him in the Holy Spirit. And I hope that you will partner with him so that he would be a pastor that invests in and nurtures the next generation in the faith."

Park moved to the U.S. from South Korea in high school, and studied Christian education in college. Thereafter, he ministered in Florida and Virginia, and received an M.Div. from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hn Park, a youth pastor at Korean Community Presbyterian Church of Atlanta, was ordained on June 19.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Sunday Services: 11 AM & 12:30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com



PCUSA Considers Overtures on Definition of Marriage, 'No Gun Ri' Incident, Among Others

BY RACHAEL LEE

The Presbyterian Church, U.S.A. (PCUSA)'s 222nd General Assembly started off on June 18, and will run until June 25 in Portland Oregon, where commissioners from over 170 presbyteries will consider various recommendations and reports.

This year, the General Assembly will review over 70 overtures — recommendations for changes — submitted by various presbyteries, and over 20 other items of business.

One of the overtures recommends the General Assembly to reverse the changes made last year to amendment 'W-4.9000' in the denomination's by-laws, which amended the PCUSA's definition of marriage to include same-sex couples. Submitted by the Kiskiminetas presbytery and concurred by the presbyteries of Atlantic Korean, Eastern Korean, Midwest Hanmi, Mississippi, and San Fernando, the overture urges the denomination to once again define marriage as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nd states that "when the PC (USA) passed amendment W-4.9000 there was no biblical background given for its consideration and then its passing. The rationale offered for the most recent revision to the definition of marriage referred mainly to society's views and civil legality, not what is in Scripture and the Confessions."

It further adds that "Christ commands us to love everyone and to welcome all into a community of faith," but "while he offers love and forgiveness, he does not condone that which God calls sin."

The Advocacy Committee for Women's Concerns (ACWC) expressed opposition to the overture, and urged the General Assembly to "disapprove" the recommendation.

"The ACWC believes that in withholding the right to marry from same-gender loving people, the church is upholding a patriarchal standard for humanity," the group stated. "The proposed amendment is a statement in opposition to the gift of God that marriage provides to human beings, which encourages healthy families, congregations, and communities."

Another overture, submitted by the presbytery of Cayuga-Syracuse, calls on the PCUSA to express solidarity with the Korean survivors of an incident that occurred in 1950 in which U.S. troops killed some 150 Korean civilians in No Gun Ri, South Korea.

Among the recommendations listed in this overture includes acknowledging and offering apology to the victims; arranging a meeting between U.S. soldiers who were present during the incident and the remaining Korean survivors for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translating a Korean novel

based on the incident into English; and establishing a memorial church in or near the No Gun Ri Peace Park in South Korea.

"This overture offers an opportunity for the Presbyterian Church (U.S.A.) to unveil the violence that the United States has often inflicted on the population of our ostensible allies, to open the way for changes in the conduct of U.S. military operations in the future, and to undertake steps toward reconciliation between American veterans and civilian casualties in South Korea," the overture states.

Other overtures that the General Assembly will be reviewing include those regarding logistical matters in the denomination, such as ones "on amending ... to require a two-thirds majority vote to amend the constitution," or "on adding a new standing rule ... identifying the right of presbyteries and synods to submit overtures changing the standing rules."

Overtures involving social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fossil fuels, responding to the refugee crisis, and the HIV/AIDS epidemic, will also be considered.

The PCUSA is the largest Presbyterian denomination in the U.S., with a little less than 10,000 member churches and some 1.6 million congregants, according to the PCUSA's count at the end of 2014.

More than 65 Million Displaced, Setting Record High, According to UN

BY RACHAEL LEE

The number of refugees today is the highest it has ever been at over 65 million people, according to a report released by the United Nations Refugee Agency (UNHCR) on Monday.

This marks the first time the number of refugees has ever surpassed 60 million, the UNHCR said. And more than half of the refugees were children.

The report comes from a study that was concluded at the end of 2015. At the end of 2014, 59.5 million individuals were displaced, showing an increase of almost 6 million refugees in just one year.

The UNHCR pointed to three reasons for the unprecedented number of refugees. First, long-standing conflicts in places such as Somalia and Afghanistan see no sign of being resolved. Second, new conflicts have erupted in other areas, such as in Syria, Central African Republic, Ukraine, and South Sudan, among others. And third, the rate at which countries and organizations have been finding ways to help refugees has been "on a falling trend," the UNHCR said.

Turkey was found to be the host country with the most refugees, as almost 2.5 million refugees were numbered to have settled there in 2015. Almost one in five individuals living in Lebanon are refugees, making it a nation that "hosted more refugees compared to its population than any other country," according to the UNHCR.

The evangelical community has



Refugees at a camp in Afghanistan, pictured in 2007. (Photo: Tracy Hunter/CC)

shown support in hosting and welcoming refugees over the past year. Most recently,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approved a resolution to encourage member churches to welcome refugees during its annual meeting that took place from June 14 to 15.

Earlier this year in January, evangelicals gathered at a summit called the 'GC2' Summit -- standing for the Great Commandment and Great Commission -- hosted by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the Humanitarian Disaster Institute at Wheaton College, World Vision, and LifeWay Research, where they discussed how churches could most effectively connect with and serve refugees.

"We acknowledge that there are genuine security concerns and encourage governments to be stewards of safety, but we also observe that choosing to come to North America as

refugees would be among the least effective ways for those who intend to do us harm," a joint statement signed by a coalition of evangelicals from the GC2 Summit states.

Representatives from LifeWay Research, World Vision, World Relief, The Wesleyan Church,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 the Assemblies of God, the Humanitarian Disaster Institute, and The Billy Graham Center for Evangelism, were among those who signed the letter.

"We distinguish that the refugees fleeing this violence are not our enemies; they are victims," the statement continues. "We call for Christians to support ministries showing the love of Jesus to the most vulnerable, those in desperate need, and the hurting. This is what Jesus did; He came to the hurting and brought peace to those in despair."

Wyoming Municipal Judge Faces Lawsuit for Views Opposing Same-Sex Marriage

A municipal judge in Wyoming may lose her job and be compelled to pay a \$40,000 fine for telling a journalist over a phone interview that she, as a judge, will not officiate same-sex marriage but other magistrates may do so, in response to a hypothetical question posed by him.

Reporter Ned Donovan had called Judge Ruth Neely for her comments after same-sex marriage was legalized in Wyoming in 2014. He asked her if she would be "excited" about performing same-sex marriages, to which she responded she would not be able to do them.

"We have at least one magistrate who will do same-sex marriages, but I will not be able to," she was quoted as saying in the interview.

She added that her view on mar-

riage is that between one man and one woman.

A formal complaint was filed against her after the interview was published, and a misconduct investigation was initiated by Wyoming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 and Ethics.

According to the Baptist Press, Neely was offered various conditions if she would agree to conduct same-sex marriages, such as not publishing the interview story, or dropping the prosecution.

However, Neely declined the offers every time.

The commission then voted unanimously to file a recommendation to the Wyoming Supreme Court to oust Neely from her post.

Neely's attorneys and supporters say that efforts of an unelected commis-

sion to remove her from office because of her opinion about gay marriages are based on misinterpretation of law.

Neely's lawyers have asked the state supreme court to dismiss the commission's recommendations that she was in non-compliance with the law and needed to be removed her office.

Neely had served as a Municipal Judge in Pinedale for nearly 21 years.

Her supporters from the state are rallying with her to prevent her removal from the office.

"The fundamental principle that no judge should be expelled from office because of her core convictions unites a diverse group of Wyoming's citizens, including members of the LGBT community who have expressed dismay at the commission's actions here," states a brief submitted by her lawyers.

Sunday Services: 9 AM & 11:15 AM
Children's Ministry: 9 AM & 11:15 AM
Youth Group Service: Sundays at 11:15 AM

PASTOR KEITH PARK

Church of Southland

1380 S. Sanderson Ave, Anaheim, CA 92806
T. (714) 209-7349 / churchofsouthland.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Sunday Services: 9 AM & 10:45 AM
Children's Ministry Services: 9 AM & 10:45 AM
Youth Services: Sundays at 9 AM, Wednesdays at 6:30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0:45 AM

PASTOR TIM PARK

Evangelical Free Church Diamond Bar

3255 S. Diamond Bar Blvd, Diamond Bar, CA 91765
T. (909) 594-7604 / www.efreedb.org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to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a.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10: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0:30 AM, 12:15 PM
College Services: Sundays at 12:15 PM

PASTOR KIWON SUH

New Life Vision Church

4077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323) 373-0110 / www.nlv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PH
PuenteHills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72개월까지
0%이자가가능

Father's Day & 졸업시즌 특별SALE

"THE EXCITING APPEAL OF ELANTRA SPORT"

NEW
2017 HYUNDAI
ELANTRA SE

Lease It For **\$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2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50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6 HYUNDAI
SONATA SE

Lease It For **\$8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2,875

36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Signing, \$2,750 Lease Cash,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DESIGN RENEWED BY INNOVATION"

NEW
2016 HYUNDAI
TUCSON SE FWD

Lease It For **\$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115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Lease Cash, \$1,000, \$500 Valued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NEW
2017 HYUNDAI
SANTA FE SPORTS 2.4 FWD

Lease It For **\$11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470

24 Months Closed End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50 Lease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 Rebate On Approved Credit. 12,000mile/year



찰리 정
626.513.4981



스티브 장
626.723.3336



저스틴 길
626.723.3584

HYUNDAI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HYUNDAI Assurance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